

# 동북아 역사 포커스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

제3호 | 2022 겨울

포커스 비문으로 만나는 고구려사

동북아역사포커스 제3호 (2022 겨울)

---

Northeast Asian History Focus(Vol. 3 Winter 2022)

## 동북아역사포커스

제3호 2022 겨울

발행일 2022년 12월 1일  
등록번호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발행인 이영호  
발행처 동북아역사재단  
편집위원장 김현철  
편집위원 김종근, 심호성, 위가야, 조건, 조윤수, 차재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44  
팩스 02)2012-6186  
구독 문의 및 독자 의견 nahfocus@nahf.or.kr  
제작·인쇄 역사공간

ISSN 2950-9696

『동북아역사포커스』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www.nahf.or.kr](http://www.nahf.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글은 필자의 견해이며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b>편집자의 글</b> 김현철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4
<b>특별기고</b>	<b>광개토왕릉비와 고구려사 연구</b> 노태돈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7
<b>포커스 비문으로 만나는 고구려사</b>	<b>광개토태왕릉비 탁본 해정본의 특징과 가치</b>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20
	<b>광개토왕비의 발견과 논점: 신묘년조 문제를 중심으로</b> 강진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34
	<b>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논점</b>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45
	<b>충주고구려비의 발견과 논점</b> 이규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57
	<b>최신 과학적 조사를 통한 충주고구려비 연구</b>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69
	<b>무자비(無字碑): 축천무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글자 없는 비’</b> 홍성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82
<b>체험! 역사현장</b>	<b>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소개</b> 박수진 성북문화원 부장	94
<b>현지통신</b>	<b>2022년 몽골 울란바타르의 풍경과 세계화</b>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04

최근 중국 내 박물관의 고구려 유물 전시를 계기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알리는 일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구려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주는 자료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은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 앞에 놓인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중국 정사를 비롯한 중국 측 문헌 사료에 고구려 당대의 모습을 전하는 기록이 일부 남아 있지만 타자의 눈을 거친 자료라는 점에서 그것이 전하는 모습이 온전한 고구려의 것인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삼국사기』 등의 한국 측 문헌 사료에 대해서는 고구려가 망한 지 500여 년이 흐른 뒤에 쓰였다는 시간의 문제와 신라 중심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관(史觀)의 문제를 한계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의 모습을 비교적 온전하게 전하는 대표적인 자료로 금석문(金石文)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쇠(金)와 돌(石)에 새긴 글(文)인 금석문은 고구려인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전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큼니다. 현재 남아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 금석문은 비문(碑文)이라 할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 지안(集安)시의 광개토왕릉비를 필두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고구려비인 충주고구려비 그리고 가장 최근에 중국 지안시에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가 오늘까지 남아 현대인들을 고대인이 살았던 고구려의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문이 전하는 사실(史實)의 맥락과 이에 반영된 사관(史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는 비문이 전하는 고구려의 실상(實狀)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문은 고구려 당시의 역사와 국내외 정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에 이번 제3호에서는 ‘비문으로 만나는 고구려사’를 대주제로 고구려와 주변 국가들의 비문을 소개

하고 분석한 글들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19세기 말에 재발견된 ‘광개토왕릉비’의 경우로서, 노태돈 서울대 명예교수가 「특별기고」를 통해 비문 판독 및 탁본 작업의 역사와 국내외 학계의 연구성과를 전체적이며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에서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경희대 혜정박물관 소장 ‘혜정본’을 중심으로 현재 전해지는 광개토왕릉비 탁본들의 종류와 상태 및 특징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강진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광개토왕릉비 내용 중 ‘신묘년조 문제’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면서 비문 글자의 해석에서 고구려인이 비문을 작성한 역사적 맥락의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 중 일반적으로 ‘광개토왕릉비’로 불리어지는 동일한 비문에 대해서 필자들에 따라 광개토왕릉비, 광개토태왕릉비, 또는 광개토왕비 등으로 표기하였는데, 필자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2년 중국 지안시에서 발견된 ‘집안고구려비’에 대해서는 위가야 재단 연구위원이 이 비석이 발견되어 국내외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킨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문이 발견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과 성격에 대해 학계 연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학계의 연구를 통해 비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세 번째,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인 ‘충주고구려비’에 대해서 이규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은 1979년 발견 이후 조사를 통해 고구려가 세운 비로 확인되고 밝혀진 내용들과 비문의 건립 연대 등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광의 재단 연구위원은 재단이 관련 학계

와 함께 충주고구려비에 대해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조사, 분석한 과정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고 양질의 탁본을 확보하며 3차원 스캐닝하여 이미지 캡처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결과, 판독 가능한 글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를 활용한 결과물로 재단에서 충주 고구려비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 출간되었습니다.

위 고구려 비문들은 비슷한 시기 신라와 당에서 건립된 다른 비문들과 비교해볼 때, 그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홍성민 재단 연구위원이 고구려와 전쟁을 벌인 당의 비문으로 측천무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무자비(無字碑, 글자가 없는 비)’의 건립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비문에 대해서는, 박수진 성북문화원 부장이 「체험! 역사현장」에서 경북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을 다녀온 소감과 관람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통신」에서 현재 몽골에 파견된 박장배 재단 연구위원이 울란바타르 시내 역사유적지를 방문하여 그 현장과 최근 변화된 모습을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이 독자들께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및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광개토왕릉비와 같은 역사유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중국 내 남아 있는 비석 등 고구려 유적과 유물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한중 양국의 교류와 학계 연구가 좀 더 활발해져서 앞으로 많은 연구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동북아역사포커스 편집위원장  
김현철

# 광개토왕릉비와 고구려사 연구

노태돈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 1. 비문의 정확한 판독과 탁본

고구려가 활발히 대내외적인 움직임을 전개하던 시기인 고구려 중기의 경우, 이에 관한 『삼국사기』의 기사는 오히려 앞 시기에 비해 더 빈약한 형편이다. 그런 만큼 이 시기 비문 자료가 지닌 가치는 지대하다. 광개토왕릉비(이하 능비)는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비석이며, 고구려가 주변 여러 나라들과 교섭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념물이다. 능비가 재발견된 이래로 이에 관한 연구는 남·북한, 중국, 일본, 대만 등에서 거듭 행해지고 있다. 그간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그것을 정리한 연구사도 몇 권 출간되었다. 능비를 둘러싼 논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내 학인들의 공통 관심사로서, 금석문 연구의 꽃이다.

비석 연구에서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정확한 비

능비를 둘러싼  
논의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내  
학인들의 공통  
관심사로서, 금석문  
연구의 꽃이다.

## 특별기고

문의 판독이다. 이를 위해선 정확한 탁본이 요구된다. 광개토왕릉비의 경우, 오랜 기간 그 존재가 망각되어 오다가 1877년 무렵 재발견되었다. 당시 능비의 표면에는 두텁게 이끼가 덮혀 있었다. 탁본을 하기 위해선 먼저 이 이끼를 제거해야 했다. 1878~1879년 무렵 이를 위해 이끼에 소똥과 말뚝을 두텁게 바르고, 불로 태웠다. 누잇 누잇 이끼가 타면서 비석도 열로 터지고 깨졌다. 그에 따라 비면에 큰 균열이 생기고 글자가 깨지는 등 상처를 입게 되었다. 거친 비면의 거대한 비석을 탁본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료와 기술이 필요한데 시골 벽지에서 그것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1880년대에 들어 능비문에 대한 추탁이 이루어져 목본이 산출되었다. 이 무렵 만들어진 목본은 두 종류이다. 하나는 원석탁본이고 다른 하나는 묵수곽전본(墨水廓填本)이다. 이 두 종류의 목본이 만들어진 순서에 대해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묵수곽전본이 먼저 만들어지고, 뒤에 원석탁본이 채탁되었다는 견해이다. 다른 한 견해는 원석탁본과 묵수곽전본이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직접 거대한 비석의 비면에서 글자 획에 따라 비문의 글자를 떠낸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그에 비해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먼저 담묵(淡墨)으로 원석탁본을 뜨고, 이 탁본에 의거해 비문을 판독하고 그 탁본 위에 다른 종이를 대고 글자의 윤곽을 그려낸 뒤, 글자 이외의 부분을 묵으로 채워 넣어 묵수곽전본을 완성하였다. 이때 이 원석탁본은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뜬 것이 아니라 묵수곽전본을 만들기 위한 시료(試料)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원석탁본은 이른바 제1형 원석탁본으로 대만 푸쓰넨(傅斯年)도서관 을(乙)본, 왕샤오젠(王少箴)본, 베이징대학도서관장본 등이 있으며, 188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

된다. 한편 일본 육군참모본부가 남만주 지역에 파견한 스파이인 사코 가게아키(酒勾景信)<sup>1</sup> 중위가 1883년 지안(集安) 현지에서 구입하여 1884년 일본으로 가져간 별지로 된 131매의 능비 묵본은 묵수곽전본인데, 흔히 쌍구가묵본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민간인 한학자들을 동원해 이 묵수곽전본을 상당 기간 면밀히 검토한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1889년 『회여록(會餘錄)』 5집에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신묘년조에 대한 해석과 이른바 ‘왜의 고대 남선(南鮮)경영론’이 시의를 타고 강조되었다.

한편 베이징대학도서관의 능비 탁본(3호)이 말해주듯이 원석탁본이 베이징에 전입된 것은 1885~1886년 무렵이었다. 이어 1889년 양질의 원석탁본을 얻기 위해 베이징의 인사들이 유명한 탁공 이운종(李雲從)을 지안에 파견하여 능비를 채탁하게 하였다. 그 결과 원석정탁본이 만들어져 그해 후반 베이징에 전입되었으며, 그것의 여러 폭이 현재 전하고 있다. 이후 원석정탁본이 일반화되었으며, 1890년대 전반부터는 비문에 석회를 발라 탁본을 용이하게 한 석회탁본이 널리 행해졌다.

이렇듯 능비의 탁본을 둘러싼 여러 시도와 탁본 거래가 활발히 행해지던 시기, 정작 고구려인

1 가게아키, 또는 가게노 부라고도 한다.

池叱奴客為民歸王  
男居城至新羅城倭  
厥安羅人或兵校新  
羅人式兵新羅城

守墓之人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唯有  
富足之者亦不得擅  
買其有違令賣者刑  
之買人制令守墓

전통 기법으로 제작한 능비 쌍구가목본(좌)과 사코 목수곽전본(우) 비교



석회가 칠해진 상태의 능비 사진(1918)

## 특별기고

의 후예인 조선인은 이에서 소외되었다. 간혹 가난한 망명객이 지안 현장을 들렀다가 탁본 한 장을 사지 못한 채 씩씩히 돌아서곤 하였다.

해방 이후 상업적 목적의 능비 탁본과 그 거래는 금지되었다. 이후 조·중합동고고역사조사단이 꾸려져 1963년 현지답사가 행해졌다. 이때 북한 학자들이 지안을 방문하였고, 장명선에 의해 능비 탁본이 행해져 장명선본 1부가 평양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60년대 중반 정인보의 학설을 계승한 박시형, 김석형 등의 능비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재일한국인 학자 이진희가 일본 육군참모본부에 의한 능비조작설을 제기하여,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전개되었다.

능비 조작 여부의 파악과 보다 정확한 판독을 위해 능비에 대한 실사와 정밀촬영 등의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다. 무엇보다 석회를 바르기 이전의 원석탁본을 찾아 이것과 석회탁본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열기를 띠었다. 한·중·일·대만에 있는 여러 개의 원석탁본이 확인되었고 그에 대한 검토가 행해졌다. 그 결과 석회탁본에 의거한 판독의 오류가 여러 군데 확인되었고, 보다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졌다. 가령 제1면 3째 줄의 ‘黃龍負昇天’은 ‘履龍眞昇天’으로, 제2면 영락 10년 경자년조의 ‘倭滿倭潰’로 판독되던 부분은 ‘倭寇大潰’로 파악되었다. 발랐던 석회가 떨어져 나간 뒤의 비문과 대조하니, 수정 판독의 정확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판독이 엇갈리고 불분명한 부분도 있다. 가령 신묘년조에 대한 기존 판독문인 “來渡海破百殘□□□羅以爲臣民”에서 ‘海’자는 원석탁본에선 불명확하여 판독키 어려운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원석탁본을 찾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능비의 재발견 경위와 탁본이 처음 행해진 시기 및 석회탁본을 만든 사람과 목적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 특별기고

파악되었다. 능비에 석회를 바른 이는 탁본을 팔아 생활하던 현지의 중국인 탁공 초씨(初氏) 부자였으며, 석회를 바른 것은 의도적으로 비문을 조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탁본을 원활히 하기 위한 편법으로 행하였음이 밝혀졌다. 그 탁공이 작성한 비문 초록도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비문조작설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이 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본에 능비문이 처음 도래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제국주의적 국가 권력과 결부된 일본 근대사학의 한 면모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 2. 비문 해석상의 문제

능비문의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신묘년조 기사이다. 신묘년조 기사의 판독은 그간 원석탁본에 대한 검토 결과, 일각에서 여전히 이견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破百殘□□□羅以爲臣民”으로 읽는 데에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하여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또는 신묘년 이래로)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로 풀이하는 게 ‘통설’이었다. 이에 대해 능비문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을 들어, ‘來’자 다음에 끊어 읽어, ‘渡□破’의 주어는 고구려이고 목적어는 왜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즉 “왜가 신묘년에 침입해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왜를) 격파하였다”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백제를 주어로 보고, 결락된 부분의 세 글자를 ‘聯侵新’ 또는 ‘招倭侵’으로 보충하여, “백제가 (왜와 연결하여) 신라를 침공해 신민으로 삼았다”로 해석하였다

## 특별기고

(A). 한편 ‘來’에서 끊어 읽고 ‘渡海破’의 주어를 고구려로 보지만, 목적어는 백제와 신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왜가 신묘년에 (백제를 지원키 위해) 왔다.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를 격파하고 신라를… 하여(또는 백제, □□,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하기도 하였다(B).

이런 해석 중에서 A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 설이 제기한 구체적인 실마리는 ‘來渡(海)’라는 표현에 있다. ‘왔다(來)’에 이어 ‘바다를 건넜다(渡)’가 이어지는데, 이를 한 단어로 여기는 풀이는 모순이고, 또 그럴 경우 왜가 ‘파(破)’의 주어가 될 수 없으며, 왜는 어디까지나 ‘來’의 주어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주장을 따르자면 주어가 짧은 한 문장 내에서 왜→고구려→백제로 세 번 바뀌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B의 주장에도 의문이 따른다. 신묘년조를 고구려의 남정(南征) 기사로 본다면, 이어지는 병신년조에도 다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여 굴복시킨 사실이 길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능비의 문장 구성에서 신묘년조의 기사는 이어지는 병신년조의 광개토왕 남정에 관한 서술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전치문(前置文)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묘년조를 B와 같이 풀이하는 것은 뒤를 잇는 병신년조와의 연결에서 문맥상 어색한 면을 드러낸다.

문제는 ‘來渡海’라는 언뜻 모순되게 느껴지기도 하는 서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來’를 앞으로 붙여 “신묘년 이래(以來)”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에 ‘來渡□’를 하나의 동사로 보아,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여…”라고 새겨야 한다는 설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신묘년조 기사의 해석 자체는 ‘통설’

과 같이 하는 것이 순리라고 여겨진다. 단 신묘년 조에서 전하는 기사의 내용이 그대로 다 사실성을 띠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능비 작성 당시 고구려 지배층의 천하관을 반영한 과장된 면이 담겨 있다. 즉 백제와 신라 등은 예로부터 마땅히 고구려 대왕의 지배 아래 종속되어야 할 대상이었는데, 이 나라들을 포괄하는 고구려의 천하에 이질적인 왜가 침공해와 교란하였기에 대왕이 이를 격파하였다는 것이다. 신묘년 조 등에서 왜군의 존재와 그 역할을 크게 부각시킨 서술을 하였던 것은 그러한 왜를 격파한 광개토왕의 훈적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신묘년조에는 능비 작성 당시 고구려 지배층의 천하관을 반영한 과장된 면이 담겨 있다. ... 왜군의 존재와 그 역할을 크게 부각시킨 서술을 하였던 것은 그러한 왜를 격파한 광개토왕의 훈적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외에도 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 가령 영락 10년(400) 경자년에 5만 병력을 동원한 신라 구원전에 관한 서술에 보이는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에 대해 ‘안라’를 고유명사로 보아 ‘안라국(아라가야: 지금의 함안 지역)의 병사로 구성된 수비병’으로 여기는 설이 제기되었다. 단 그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선 이를 일본군의 별동대로 보는 설이 일찍이 주장되었고, 백제 및 왜와 공동전선을 구축한 군대로 보는 설 등이 이어졌다. 한편으로 고구려를 따르는 안라의 군대로 보는 설도 제기된 바 있다. 반면 ‘安’

## 특별기고

을 동사로 본 견해로는, 이를 (고구려가) “(신)라인 수비병을 안치(安置)하여 지키게 하였다”로 풀이하는 의견과 “라인(濼人)을 두어 지키게 하였다”로 보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안라인수병’은 경자년조에 세 군데 기술되어 있으나, 그 부분을 전후하여 문자가 훼손되어 불분명하고, 또 이 시기가야 여러 나라들의 대내외 정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무튼 영락 10년조의 남정 기사는 광개토왕과 고구려군의 위훈을 과시하기 위해 서술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을 염두에 둔 풀이는 보다 구체적인 비문 판독의 근거 제시가 필요한 바이다.

판독이 분명하게 되는 부분이라도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한 부분도 적지 않다. 가령 광개토왕을 ‘十七世孫’이라고 하였다. 이 ‘十七’이 어느 왕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것이며, ‘世孫’이 왕의 대(代)수를 가리키는 것인지 세대수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의가 엇갈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주류왕(대무신왕)을 제1세손으로 치고, 그다음 왕들을 세대와 관계없이 왕의 대수로 헤아려 광개토왕을 추모왕의 17세손이라 했다고 보는 견해, 추모왕부터 왕의 대수로 계산하여 17번째 왕이 광개토왕이라고 보는 설, 왕의 대수로 보되 추모왕 다음의 유리왕을 제1대 왕으로 하는 세대수를 기술한 것이라고 여기는 설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여러 설들은 각각의 주장에 따라 현전하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왕계와 고구려국의 성립 시기를 추정하였고, 자연 그에 따라 고구려의 건국 시기에 대해 현저한 이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능비에 기술된 수묘인(守墓人)의 신분적 성격을 둘러싼 논란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크게 양인농민설과 천인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선 다시 노예설과 국가에 귀속되어 역을 지는 비자유민 또는 부곡이나 소(所)와 같은 성격의 천민으로 간주하는 설로 구분된다. 이 역시 삼국시대 민(民)의 성격에 관한 보다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3. 능비 작성자의 의도

일반적으로 금석문이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여기는 것은 그것이 후대에 개서(改書)되거나 중찬(重撰)될 수 있는 문헌사료와 달리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금석문이 사서의 기록보다 정확성과 가치 면에서 항상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능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능비가 대왕이 죽은 직후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실성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능비 제작자의 의도가 직접 작용할 수 있고, 또 비면의 제한에 따라 왕의 훈적을 압축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사서의 연대기에 비해 부정확한 면을 지닐 수도 있다. 실제 능비의 기사에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사보다 부정확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있다. 그 두드러진 예가 후연(後燕)과의 전쟁에 관한 부분이다. 광개토왕 재위 당시 고구려는 후연과 수차례 전

능비도 하나의 기록물인 만큼 그 내용에 작성자의 의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자연히 능비의 기사를 객관화하여 이해하는데에는 능비 작성자의 의도와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뜻한다.

쟁을 벌였고 그 결과 요동평원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전하고 있다. 그런데 능비에서는 후연과의 전쟁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는 그간 비문을 잘못 판독하였거나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한 탓일까? 아니면 능비 작성자의 의도가 작용한 것일까?

능비도 하나의 기록물인 만큼 그 내용에 작성자의 의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자연스럽게 능비의 기사를 객관화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능비 작성자의 의도와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뜻한다. 그런데 능비 제작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상에 대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곧 능비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고, 또 당시의 역사상을 통해 능비의 내용을 파악하는 양방향의 접근을 하여야 능비에 대한 한 단계 더 진전된 이해를 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바이다. 그럴 구체적으로 앞에서 제기한 면을 살펴보자.

능비에 고구려와 후연 간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능비를 세운 장수왕 시기 고구려 조정의 요서 방면 진출이나 평양 천도에 관한 의지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간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였던 후연과의 전쟁은 408년을 고비로 일단락되었다. 이해에 고운(高雲)의 북연(北燕)이 들어섬에 따라, 고구려 조정은 북연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며 친선을 도모하였다. 이제 고구려에게는 북연이 북위(北魏)의 동진세를 막아줄 방과제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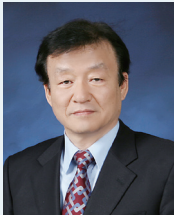
또한 당시 국내성이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과밀해져 대국의 수도로서 적합하지 않아 조만간 천도를 모색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그럴 때 평양이나 요양(遼陽) 등을 그 대상지로 떠올릴 수 있었겠다. 요양 방면은 요서-북중국 방면으로의 팽창을 고려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북

## 특별기고

연과의 관계나 북위의 팽창세를 고려할 때 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그에 반해 광개토왕대 이래로 그 경영에 힘을 기울여 왔던 평양 방면에 선택의 무게가 두어졌을 수 있겠다. 그럴 때 능비에서 후연과의 전쟁을 자세히 기술하는 것은 고구려 국민(國人)들의 요서 방면으로의 진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하였던 것 같다.

### 4. 능비가 고구려 문화에 남긴 것

한(漢)대 이래로 유행하였던 규(圭)형으로 된 집안고구려비와는 달리 사각형의 돌기둥 모양을 한 광개토왕릉비는 새로운 형태의 비석으로서, 이후 충주고구려비의 원형이 되었으며 신라 석비의 형태에도 영향을 끼쳤다. 5세기 이후 고구려 문화가 한대 이래 중국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개성을 지닌 형태로 성장해 나간 면모를 능비를 통해 느껴볼 수 있는 것 또한 능비가 후대인에게 남겨준 주요 요소이다.



**노태돈(盧泰敦, Noh, Tae-Don)**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역사연구소 소장,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한국고대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포커스

# 비문으로 만나는 고구려사

---

##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해정본의 특징과 가치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광개토왕비의 발견과 논점: 신묘년조 문제를 중심으로

강진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 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논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 충주고구려비의 발견과 논점

이규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 최신 과학적 조사를 통한 충주고구려비 연구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 무자비(無字碑): 축천무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글자 없는 비'

홍성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해정본의 특징과 가치

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탁본(혹은 답본)의 사전적 의미는 석비, 기와, 기물 따위에 새긴 문자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내는 것이다. 따라서 탁본을 뜨는 대상물이 동일하다면 그 결과물은 동일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30여 벌이 남아 있는 광개토태왕릉비(이하 능비) 탁본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왜일까? 능비의 내용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 제20대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태왕 사후 2년이 지난 414년에 도성 동북방의 국강상(國岡上: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현)에 선왕의 업적을 기리는 비(碑)를 세운다. 비는 각력응회암(角礫凝灰岩)의 자연석으로 높이 6.39m의 사면비(四面碑)이다. 동남 방향을 바라보는 제1면은 비 밑 부분 폭이 1.48m이다. 제2면(서남)은 1.35m, 제3면(서북)은 2m, 제4면(동북)은 1.46m이다. 무게는 약 40톤으로 추측되며 화강암의 대좌에 우뚝

현재 130여 벌이 남아 있는 광개토태왕릉비 탁본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왜일까? 능비의 내용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다. 비문은 4면에 걸쳐 약 1,775자가 새겨져 있다.

능비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건비 후 1,460여 년이 지난 1880년이였다. 발견 직후부터 곧 탁본이 만들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수풀과 이끼 등에 싸여 있던 터라 이를 제거하지 않고는 탁본이 어려웠다. 따라서 초기에는 부분 탁출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묵수곽전본(墨水廓填本)이 만들어졌다. 이후 성격이 다른 탁본이 만들어졌는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탁본의 종류

### (1) 묵수곽전본(墨水廓填本)

비면(碑面)에 종이를 대고 탁본을 뜬 후 그 탁본을 보면서 문자를 읽고, 그 위에 별지를 대고 베낀 것이다. 그 제작 과정에서 원석탁본이 만들어졌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묵수곽전본을 만들기 위한 바탕자료였다. 1883년에 사코 가게노부(酒匂景信)가 현지에서 입수한 이른바 사코본(酒匂本: 도쿄국립박물관 소장)은 이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베낄 때 먼저 얇은 묵으로 글자의 주위를 그리고 난 다음, 진한 먹으로 덧그려 완성시킨다. 진한 먹을 덧입혀 자획을 완성한다는 점에 주목

묵수곽전본은  
원석탁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원석탁본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글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여 쌍구곽전본(雙鉤廓填本) 혹은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이라고도 하였지만, 얇은 먹으로 자획을 표현하는 공정 과정에서 쌍구(雙鉤: 비면에 직접 탁본지를 대고 글자의 윤곽을 그리는 것)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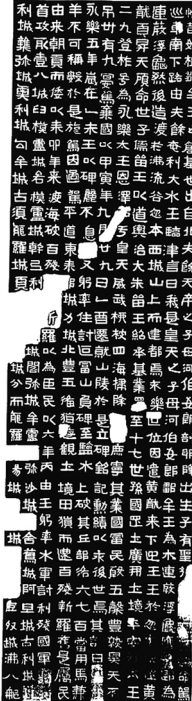
이 묵수곽전본은 원석탁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원석탁본을 어떻게 읽었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글자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엄격히 보면 이는 탁본이라 볼 수 없지만, 초기에 만들어진 탁본이 글자를 어떻게 읽고 만들어졌는 가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 (2) 원석탁본(原石拓本)

묵수곽전본에 만족할 수 없자 이어서 만들어진 탁본이 이른바 원석탁본이다. 이는 비면에 아무 것도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탁본이다. 종이를 물에 적셔 비면에 강하게 부착하여 만들기 때문에 비면의 거친 표면이 석화(石花: 흰 반점)로서 종이에 반영된다든지, 비면의 요철(凹凸)이 그대로 탁지(拓紙)에 표현되어 나타난다.

베이징대학도서관 A~D본과 청명본(靑溟本: 임창순 구장본), 대만의 푸쓰넨본(傅斯年本), 일본의 미즈타니본(水谷本: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소장), 가네코본(金子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명본

현재 원 비석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능비 연구의  
일차적 사료는  
원석탁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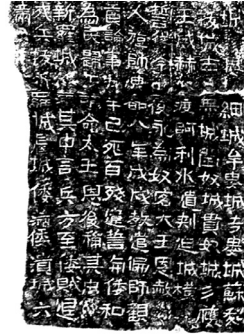
목수곽전본(사코본)



원석탁본(미즈타니본)



석회탁본(사반느본)



모각본(베이징대학도서관 H본)

탁본의 종류

의 경우 탁출된 내력이 담긴 발문이 있어 이 탁본이 원석탁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청명본은 1889년에 베이징(北京)의 명탁공 이운중(李雲從)이 채탁한 것이다. 미즈타니본과 가네코본도 원석탁본이 지닌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현재 원 비석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능비 연구의 일차적 사료는 원석탁본이다.

### (3) 석회탁본(石灰拓本)

원석탁본은 비면의 상태 등으로 인해 글자의 형태가 모호한 부분이 많았으며 탁본 작업도 어려웠다. 이에 1890년대 초부터는 비면에 석회를 발라서 탁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를 석회탁본이라 한다. 석회탁본은 1937년 중국 정부에서 탁본 작업을 금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능비 탁본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석회탁본이다. 이는 비면에 석회를 발라 자획을 확실히 표현한 다음 뜯 탁본이다. 비면 전체에 석회를 평평히 바르고 글자를 새긴 것은 아니고 글자가 없는 주변, 행간을 구분 짓는 계선, 비면의 움푹 패인 곳에 석회를 발랐다. 석회보수탁본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석회는 지금도 비면에 상당량이 존재한다. 더구나 1960년대와 1980년대에 중국 당국이 비면의 강화 보수를 위해 행한 약품 처리 작업은 더 큰 문제가 되었다. 약품에 의해 잔존 석회와 응회암의 원석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제 원석과 석회의 완전한 구분은 힘들게 되었다.

대표적인 석회탁본은 프랑스 샤반느(Chavannes)본, 일본 가지모토본(梶本本, 일명 규슈대학 소장본), 나이토 가쿠스케본(内藤確介本, 일명 메쿠로구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본 등이 있다.

### (4) 모각본(模刻本)

비의 복제품에 비문을 번각(翻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탁본이다. 번각본이라고도 한다. 재질은 석판(石板)이나 목판(木板), 지판(紙板) 등이다. 따라서 이는 비의 원석에서 만들어진 탁본이 아닌 이른바 가짜 탁본이다. 탁본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부족하자 돈을 벌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1920~1930년대)부터 만들어졌다.

오사카역사박물관에 기탁되어 있는 이케우에본(池上庄治郎本), 고마진자본(高麗神社本), 베이징 대학도서관 H본, 대만 국가도서관 을종본(乙種本) 등이 모각본에 속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연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모각본도 만들어지고 있다. 탁본이 고가에 매매되기 때문에 구입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 2. 혜정본의 특징과 가치

혜정본은 전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관장 김희숙 씨 소유의 능비 탁본이다. 혜정은 김희숙 씨의 호이다. 이 탁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광개토태왕이 봉어한 지 1,600년이 되는 해인 2012년이었다. 탁본의 명칭은 소유자 김희숙 씨의 호를 따서 ‘혜정본’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소유자는 1984~1985년 무렵 중국 베이징의 리우리창(琉璃廠)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하였다. 구입 후 몇몇 지인들에게 보여주었으나 원석탁본인지의 여부 등을 포함해 이 탁본의 진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혜정본은 모두 2책으로 능비의 1면과 2면을 각각 잘라서 1책씩 엮었다. 원래는 4책으로 추정되며 3면과 4면이 없다. 향후 출현을 기대한다. 동

이 탁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광개토태왕이 봉어한 지 1,600년이 되는 해인 2012년이었다. 탁본의 명칭은 소유자 김희숙 씨의 호를 따서 ‘혜정본’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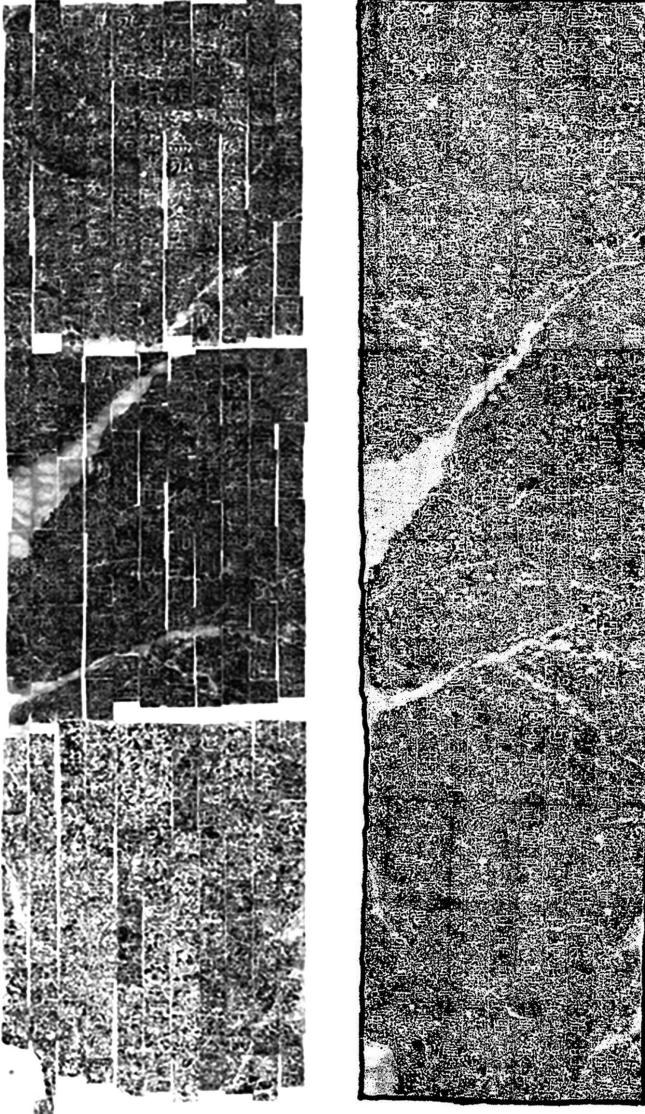


### 혜정본

1. 첫 페이지
2. 본문 펼침면
3. 4침 안정법으로 성책된 모습

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14년 혜정박물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실물 크기와 축소판을 함께 게재한 도록을 편찬하여 향후 누구나 혜정본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혜정본은 전체 탁본을 잘라서 책으로 엮은 선장본(線裝本)이다. 실을 사용해 책을 만드는 것은 예부터 한·중·일 삼국에서 서적 장황(裝潢)에 일반적으로 사용한 방법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에 비해 책의 장황 방법이 약간 달랐다. 한국은 책의 우측에 5개의 구멍을 낸 반면(5침 안정법), 중국과 일본의 경우 4개의 구멍을 내어 책을 만들었다(4침 안정법). 혜정본은 4침 안정법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현존 상태의 혜정본 장황은 일본 아니면 중국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혜정본의 첫 쪽에 중국 베이징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감정인(鑑定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 성책한 것으로 보인다.



헤정본(좌)과 미즈타니본(우) 1면 복원도 비교

해정본이 원석탁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석탁본임이 확실한 다른 탁본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비교 검토의 대상 자료로는 미즈타니본이 가장 알맞다. 미즈타니본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데다가 현존하는 원석탁본 가운데 원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첫째, 양 탁본 모두 비문의 각 면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정본을 복원해보면, 한 면을 상·중·하 3단으로 나누어 모두 12장으로 구성한 탁본임을 알 수 있다. 1면 상단의 경우, 1자부터 14자까지 이르는 범위에 대해 먼저 탁출하였다. 중단은 14자를 겹쳐 탁출하고 27자까지 이른다. 하단은 27자부터 41자에 이르는 부분을 탁출하였다. 2면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탁출하였다. 이렇게 한 면을 3단으로 나누어 탁출한 방식은 미즈타니본과 같은 방식이다. 그리고 각 단의 시작과 끝이 동일한 점도 두 탁본이 같다. 이 점은 두 탁본이 동일 시기 동일인에 의해 만들어진 탁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양 탁본 모두 탁본 종이를 두 겹으로 했다. 두 탁본의 경우 얇은 종이를 사용하여 탁출했는데, 두 겹으로 한 것은 비면의 상태가 거칠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얇은 종이의 경우 글자 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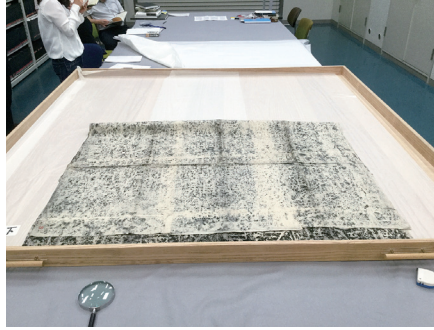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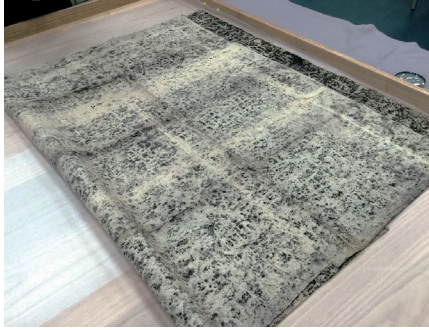
해정본이  
원석탁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석탁본임이 확실한  
다른 탁본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비교 검토의  
대상 자료로는  
미즈타니본이 가장  
알맞다.

출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유리했다. 그러나 능비의 상태가 얇은 종이 한 겹으로 탁본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것 같다. 이에 종이를 두 겹으로 하여 탁본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즈타니본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3중 또는 4중으로 된 곳도 있다. 종이를 두 겹으로 한 탁본 방법은 탁본 제작자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다. 혜정본도 탁지를 두 겹 사용해서 탁출했음이 탁본 곳곳에서 확인된다.

셋째, 종이의 질이 유사하다. 지질(紙質)에 대해서는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진과 실견 때의 느낌만으로 지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착목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주로 살펴본 결과 양 탁본은 거의 유사한 종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데이터 축적을 통한 과학적 방법을 기대한다.

넷째, 소탁지의 크기와 이음 맵시가 거의 유사하다. 능비는 6.39m에 달하는 크기 때문에 탁본 제작 시 종이를 이어 붙여 탁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 최초 작은 단위의 종이를 소탁지(小拓紙)라고 한다. 이러한 소탁지의 크기와 소탁지를 이어 붙이는 방식이 양 탁본은 유사하다. 그런데 소탁지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탁본의 뒷면 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탁본을 잘라서 선장본이나 절첩본(折帖本)으로 장황한 경우에는 이를 살피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전장본(全張本)이라 하더라도 탁본의 보존을 위해 뒷면에 장황을 한 경우에는 소탁지 크기나 이음매를 살피기 어렵다. 다행히 미즈타니본의 경우 현재 최초 탁본했을 때의 상태를 그대로 갖고 있다. 미즈타니본 소탁지의 평균 크기는 45~47cm이다. 혜정본은 전장의 탁본을 잘라서 만든 선장본이어서 소탁지의 상태를 알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탁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탁지의 이음매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를 추적해 보면 45~47cm 정도로 미즈타니본과 동일하다.

## 포커스



소탁지의 크기와 이음매의  
폭(2.2cm)을 알 수 있는 부분  
(미즈타니본 2면 하단부 뒷면)

다섯째, 착묵 상태가 매우 유사하다. 혜정본 복원도와 미즈타니본을 비교해 보면, 1면 중간 부분의 미착묵 부분에서 혜정본이 약간 좁아 보이기 하나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이다. 1면의 미착묵 부분을 전반적으로 대비해보면 거의 같은 양상이다. 특히 하단부 좌측 부분(10~11행의 40~41자 부분)의 미착묵 부분은 그 형태가 거의 같다. 중간 단의 좌하부에서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간 부분과 그 중간부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는 미착묵 부분도 매우 닮아 있다. 전문가의 솜씨는 결과물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법이다. 혜정본과 미즈타니본은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두 탁본은 같은 솜씨를 가진 사람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의 솜씨는  
결과물이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  
법이다. 혜정본과  
미즈타니본은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이 확인된다.  
두 탁본은 같은  
솜씨를 가진 사람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먹의 농도이다. 두 탁본을 언뜻 보면 동일한 사람이 제작한 탁본으로 보기 어려운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양 탁본이 가진 번짐의 정도 차이 때문이다. 탁본을 자세히 관찰하면 미즈타니본의 경우 번짐 상태가 혜정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다. 이는 먹의 농도 차이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이 탁본의 전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으로 보면 두 탁본은 성격이 전혀 다른 탁본으로 보이는 것이다. 혜정본은 미즈타니본에 비해 농묵(濃墨)이다. 그리고 번짐의 정도가 적다. 따라서 글자의 선명도는 혜정본이 양호하다. 그러나 이 차이를 가지고 혜정본이 미즈타니본보다 우월한 탁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담묵(淡墨)인 미즈타니본이 가진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획의 섬세한 부분을 보여주기에는 담묵인 미즈타니본이 혜정본보다 양호하다. 만약 양 탁본이 동일 시기 동일인이 제작한 것이라면 이러한 차이는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명확한 글자를 탁출해 내기 위해서는 비면의 상태에 따라 먹의 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농담(濃淡) 모두를 적용한 것이다. 미즈타니본은 담묵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번짐의 정도가 혜정본보다 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즈타니본과 혜정본은 전면적으로 볼 때

농담의 정도가 거의 일정하다. 이로 보아 두 탁본의 제작자는 탁본의 상당한 고수(高手)로 보인다.

일곱째, 글자 모양 비교이다. 탁출된 문자들을 비교함으로써도 양 탁본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1-9-13자(1면 9줄 13번째 글자)는 석회탁본에서 ‘海’로 명확히 보이는 글자이다. 그러나 원석탁본에서는 석독(釋讀)하기 어려운 글자이다. 혜정본과 미즈타니본도 모두 읽기 어려운 글자로 탁출되어 있다. 다만 미즈타니본보다는 혜정본이 좀 더 선명해 보인다. 1-3-27자는 원석탁본에서는 ‘天’으로 석독되는 글자이다. 그러나 석회탁본 제작 과정에서 ‘因’으로 변개(變改)되어 대부분의 석회탁본에서 ‘因’으로 보인다. 한편 혜정본과 미즈타니본은 모두 ‘天’으로 석독된다. 1-3-41자는 원래 ‘履’자이나, 석회 도포로 인해 ‘黃’으로 변개된 글자이다. 혜정본과 미즈타니본 모두 ‘履’로 읽힌다. 2-8-36자는 원래 ‘軍’이지만 석회탁본에서는 ‘兵’으로 변개되어 나타난다. 혜정본과 미즈타니본 모두 ‘軍’이다.

미즈타니본과 혜정본은 전면적으로 볼 때 농담의 정도가 거의 일정하다. 이로 보아 두 탁본의 제작자는 탁본의 상당한 고수(高手)로 보인다.

이상 혜정본과 원석탁본인 미즈타니본을 비교해 보았을 때, ① 한 면 3단 탁출 방식이라는 점, ② 탁본 종이를 두 겹으로 한 점, ③ 종이의 질이 유사한 점, ④ 소탁지의 크기(45~47cm)와 이음 맵시가 거의 유사한 점, ⑤ 착묵 상태(패턴)가 유사한

---

## 포커스

점, ⑥ 개별 글자의 비교에서 유사성이 보이는 점 등에서 두 탁본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인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질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와 검토를 행한다면 탁본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혜정본은 원석탁본임이 분명하며, 능비 연구에 양호한 새로운 자료의 확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백승옥(白承玉, Beack, Seoung-ok)**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부산대학교 사학과에서 가야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함안박물관과 부산박물관에서 학예사와 학예연구실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고대사학회, 부경역사연구소, 가야사연구회, 한국사연구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 광개토왕비의 발견과 논점

## 신묘년조 문제를 중심으로

강진원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 1. 광개토왕비의 발견과 제국주의의 그늘

광개토왕비는 414년 장수왕에 의해 중국 지안(集安) 지역에 세워졌다. 그 뒤 고구려가 멸망함에 따라 이 비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졌다. 『용비어천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지봉유설』 등 조선시대 문헌에서 광개토왕비를 막연히 금 황제가 세운 석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광개토왕비가 새롭게 주목을 받은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1880년 무렵 현지 농민에 의해 비의 존재가 청 조정에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청의 지식인들은 오래된 비문의 서체에 관한 관심이 상당하였기에, 광개토왕비는 이목을 끌기 충분하였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어디까지나 옛 서체에 대한 관심에 국한되었고, 광개토왕비가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광개토왕비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 1, 91쪽

재발견된 것은 일본 측에 의해서였다.

1883년 일본군 포병 중위 사코 가게노부(酒勾景信)는 광개토왕비 탁본을 입수하여 일본에 소개하였다. 이때의 탁본은 글자의 윤곽을 뜯 뒤 글자가 없는 자리에 먹칠하는 묵수곽전본(墨水廓填本)이었다. 일본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여 『회여록(會餘錄)』을 출간하였는데, 그 결과 드디어 광개토왕비가 고구려인들이 남긴 석비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 무렵 일본 역사학계는 기본적으로 임나일본부설에 우호적이었다.

4세기 후반 이후 2세기 동안 왜(야마토정권)가 임나(가야)를 정복·지배하였을 뿐 아니라, 백제와 신라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 임나일본부설의 요지이다. 그런데 이를 입증하는 것 같은 기록이 광개토왕비에 존재하였다. 바로 신묘년조다. 당시 일본 측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백잔(백제)·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서 조공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391)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 □□,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  
□□新羅 以爲臣民

일본 연구자들은 이를 임나일본부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다. 예컨대 사에키 아리키요(佐伯有清)는 “백제·신라가 일본의 신민이 되었던 일에 대하여 후자는 의심할지 모르겠으나, 이 비문은 고구려인에 의해 쓰인 것이고, 바로 일본의 고대사와 일치한다. 즉 천고에 비할 바 없는 좋은 증거이니 역시 유쾌한 일 아닌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광개토왕비를 한반도 진출의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다. 즉 4세기에 이미 한반도 일대를 점유하였으므로,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일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창출

5세기 초의  
텍스트에 근대  
국민국가의  
제국주의적 관념이  
투영된 셈이다.  
이로써 19세기  
후반 실체를 드러낸  
광개토왕비는  
일본 제국주의의  
튼튼한 버팀목으로  
재탄생하였다.

되었다. 5세기 초의 텍스트에 근대 국민국가의 제국주의적 관념이 투영된 셈이다. 이로써 19세기 후반 실체를 드러낸 광개토왕비는 일본 제국주의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재탄생하였다.

## 2. 내셔널리즘의 굴레에 갇힌 새로운 해석

광개토왕비 신묘년조가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은 한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대응이 이루어졌다. 20세기 초 박은식과 신채호가 광개토왕비를 소개하였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1930년대 정인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의 신묘년조 해석은 이러하였다.

왜가 일찍이 신묘년(391)에 왔다.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왜를) 파하였다. 백잔이 (왜와 통하니) 신라를 신민으로 여기고….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

정인보는 신묘년조의 주어를 고구려로 파악하여, 비문은 고구려에 유리한 상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북한의 김석형 또한 나름의 독특한 안을 제시하였다.

(백제가) 왜를 동원하여 신묘년에 (고구려에) 쳐들어왔으므로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 백잔을 파하고 □□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

김석형의 해석은 백제와 신라 등이 일본 열도에 분국(分國)을 건설하

였다는 자신의 설(列島分國說)에 토대를 두었다.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격파한 대상이 백제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신묘년조 기사에서 왜의 비중을 줄이고 고구려를 우위에 두었던 데 공통점이 있다. 일본 학계의 해석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유구한 우월성을 드러냈다면, 한국 학계에서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오랜 우수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정인보나 김석형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한계점을 지닌다. 문장 안에서 주어가 여러 차례 바뀌고 술어도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한문 독법(讀法)에 따르면 일본 학계의 해석이 자연스럽다. 비문은 어떠한 암호를 담은 비밀문서가 아니기에 읽히는 대로 읽는 편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정인보와 김석형의 한문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무리한 해석을 시도한 것은 ‘우리의 오늘’이 일본보다 열세지만, ‘우리의 어제’는 일본보다 강하였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정인보와 김석형의 움직임은 패권주의적 내셔널리즘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었으나, 그 역시 내셔널리즘의 굴레에 갇혀 일관성과 합리성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말았다.

### 3. 동아시아를 뒤흔든 탁본조작설

18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여러 경로로 수십 종에 달하는 광개토왕비 탁본이 입수되었다. 따라서 탁본을 통하여 언제든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었다. 1972년 드디어 그러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 주인공은 재일한국인 연구자 이진희였다.

이진희는 탁본에 따라 글자 형태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면

에서 석회 흔적을 발견하였다. 사실 비면에 석회가 도포되었다는 점은 이전에 미즈타니 데이지로(水谷悌二郎) 등에 의해서도 지적된 바이다. 다만 이진회는 거기에 일본 측의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파악한 데 차이가 있다. 즉 그는 최초로 일본에 탁본을 보냈던 사코가 스파이 활동을 하였을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어, 19세기 말 일본이 비면에 석회를 발라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일부 문구를 조작하였다는 과감한 추론을 펼쳤다.

비문이 조작되었다는 과격적인 주장에 일본 학계는 동요하였다. 조작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비면에 석회가 도포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판독에 대한 신뢰도는 급전직하하였고, 일본 제국주의의 사료 조작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었다.

기존의 한일 양국 연구자들은 탁본과 판독 자체에 대한 의심은 없었기에 해석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나 비문의 변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묘년



광개토왕비문 1면

朝鮮總督府, 1915, 『朝鮮古蹟圖譜』 1, 94쪽

조의 일부 의심되는 글자를 다르게 판독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진희의 탁본 조작설은 동아시아 학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 4. 현지조사와 원석탁본의 등장

탁본조작설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즈음, 중국에서는 왕젠권(王建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인이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광개토왕비가 세워진 지역을 직접 조사하였으며, 현지인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전문 탁본 제작자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왕젠권의 조사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코는 신묘년조 문구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사코의 역량을 보건대, 그가 직접 탁본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일부 문구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일본 측이 석회를 바른 일이 없다는 것, 즉 신묘년조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석회가 발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탁본 제작자들이 탁본 제작을 쉬이 하고자 이루어진 결과로 보았다. 이는 이진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의였다.

사코의 탁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탁본이 끝내 나오지 않았다면, 이진희와 왕젠권의 주장은

비문의 변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묘년조의  
일부 의심되는  
글자를 다르게  
판독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진희의  
탁본조작설은  
동아시아 학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평평하게 맞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논쟁은 오래지 않아 해소되었다. 사코의 정탐 이전에 만들어진 이른바 ‘원석탁본’들이 입수되어 학계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수 없는 원석탁본의 비문은 사코 이후의 탁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비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드러난 셈이었다.

이로써 신묘년조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역사학 연구에서 현장답사와 사료수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왕젠권의 현지조사와 원석탁본의 발견에 따라 신묘년조 해석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학 연구에서  
현장답사와  
사료수집이 가지는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왕젠권의 현지조사와  
원석탁본의 발견에  
따라 신묘년조 해석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 5. 사실(fact)과 맥락(context)의 이해

왕젠권의 연구와 원석탁본의 등장으로 신묘년조 문구 자체에 대한 이견은 잦아들었다. 그러자 신묘년조를 텍스트로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주자는 재일한국인 연구자 이성시였다.

그는 신묘년조에서 해석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전반부, 즉 “백잔·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의) 속

비문에서 왜가 강력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 확립과 광개토왕의 무훈 과시가 의도되었다는 ‘맥락’을 파악할 때, 비로소 당시 왜의 실상과 그에 얽힌 ‘진실’이 드러난다 하겠다.

민으로서 조공해 왔다(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백제는 광개토왕 즉위 이전 고구려에게 복속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문에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으로 나타난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역사적 진실인지는 별개 문제로 보았다.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의 업적을 기릴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그의 공덕에 대한 과장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늘날 추도사나 추념사를 들어보면 그보다 좋은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광개토왕비에 기재된 사실 모두가 실재하였다고 여겨서는 곤란하다. 신묘년조 전반부가 그러하다면, 왜가 언급된 후반부 역시 다르지 않다.

신묘년조 전반부는 고구려가 설정한 국제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백제와 신라가 예로부터 속국이었다고 천명함으로써 고구려 중심의 천하관을 드러낸다. 왜는 비문에서 이러한 고구려 주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외부세력으로 등장한다. 즉 비문의 왜는 고구려 중심의 천하를 어지럽히는 ‘악의 축’인 것이다. 그리고 비문에서는 광개토왕이 ‘간악한’ 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격파하여, 결국 ‘고구려에 의한 평화’를 이룬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일본에서 혼슈와 규슈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이 성립한 것은 이로부터 한참 지나서이다. 당시 왜의 상황을 고려하면 임나일본부는 물론 이요, 비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활약상을 보였다고 믿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비문의 왜’가 ‘실제의 왜’와 달리 기술된 것은 광개토왕의 극적인 무훈을 선전하기 위해서였다. 비문에서 왜가 강력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고구려 중심의 국제질서 확립과 광개토왕의 무훈 과시가 의도되었다는 ‘맥락’을 파악할 때, 비로소 당시 왜의 실상과 그에 얽힌 ‘진실’이 드러난다 하겠다.

## 6. 지난(至難)한 논쟁을 돌아보며

근대 일본의 연구자들 상당수는 광개토왕비에 러·일전쟁의 현실을 끼워 맞추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식민주의 역사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이다. 그는 왜와 고구려의 전쟁이 지닌 성격을 러·일전쟁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열도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광개토왕비를 일본으로 가져올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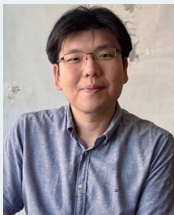
과거 한국의 연구자들도 실상은 다르지 않았다. 물론 열악한 상황에서 실증적인 연구가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초기 일본 학계의 접근방식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은 냉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요컨대 과도한 국가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19세기 말 이래 거의 한 세기에 걸쳐 광개토왕비 연구는 신묘년조 문구를 둘러싼 공방으로 점철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당시 고구려사 및 동아시아사의 실상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역사 연구는 당면한 이해관계를 정당화하는 선전도구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 포커스

다행스러운 일은 언젠가부터 신묘년조 문제가 광개토왕비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1,800자에 달하는 광개토왕비는 광개토왕의 무훈 외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여러 방면에서 역사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예컨대 왕실 시조 전승의 전개 과정이나 무덤을 지키는 이들, 즉 수묘인(守墓人)의 상황에 대한 추정 등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광개토왕비로의 여행은 지금부터라 하여도 좋겠다.



**강진원(姜辰垣, Kang, Jin-won)**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고·중세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고구려발해학회 총무이사를 역임 중이다. 사회현상과 의례 및 문화를 통해 나타나는 당대의 실상에 관심이 많다. '젊은역사학자모임'과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학계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집안고구려비의 발견과 논점

위가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비문이 전해주는  
역사는 고대인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것이 우리가  
비문을 읽고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부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유명처럼 하나의 속설이 떠돈 바 있었다. ‘10년 주기설’이란 이름을 받았던 그 속설은 사료 부족이라는 천형(天刑)에 시달리던 연구자들의 희망이 기이한 우연과 조우한 결과 만들어지고 또 퍼져 나간 것이었다.

1978년 단양신라적성비가 발견되고, 그 이듬해인 1979년 충주고구려비(당시에는 증원고구려비라 불림)의 존재가 드러난 후, 10년이 지난 1988년 울진봉평리신라비가 출현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89년에 경상북도 영일군 냉수리에서 포항냉수리신라비(당시에는 영일냉수리신라비라 불림)가 거짓말처럼 연구자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정확하게 10년을 주기로 한국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할 만한 가치를 가진 비석들이 차례로 출현하면서 어떤 연구자들의 마음에는 10년 후인 1999년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발견

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자리를 잡았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1999년은 연구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고, 그렇게 새로운 세기는 실망과 함께 찾아왔다. 그러나 실망도 잠시, 2009년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신라 비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확인된 포항중성리신라비가 나타나면서 10년이라는 주기는 다시 생명력을 부여받았다.

속설이 우연이 아닌 필연일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가 다시금 퍼져 나가던 2013년, 압록강 넘어 지안현(集安縣) 고구려의 옛 터전에서 속설은 속설에 지나지 않음을 입증해주는 소식이 들려왔다. ‘제2의 광개토왕비’라고도 불리게 되는 집안고구려비(集安高句麗碑)가 발견된 것이다.

## 1. 새로운 고구려비의 발견과 반쪽짜리 공개

2012년 7월 29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 마셴향(麻線鄉) 마셴촌(麻線村)에 살던 마사오빈(馬紹彬) 씨는 포도나무 가지 지지대를 고정시킬 돌을 구하러 마셴하(麻線河)로 나갔다가 쓸 만한 돌을 발견했다. 석판의 형태를 하고 있던 이 돌은 하천 바닥에 얹어져 있었고, 일부는 물가 모래와 자갈 속에 묻혀 있었다. 마사오빈 씨가 돌을 집에 옮겨 놓고 나니 생각보다 크기가 컸던 모양이다. 그는 돌을 잘라서 쓰러다가 표면에 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문자가 새겨진 돌을 발견한 사실을 7월 30일 오전 지안문물국에 신고했다. 지안문물국에서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돌을 수습했고, 8월 14일 천추묘(千秋墓)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탁본(拓本)을 뜬 후, 지안박물관으로 옮겨 연구를 시작하였다.<sup>1</sup>

비가 발견된 사실은 2012년 12월 20일에 한국 학계에 알려졌다.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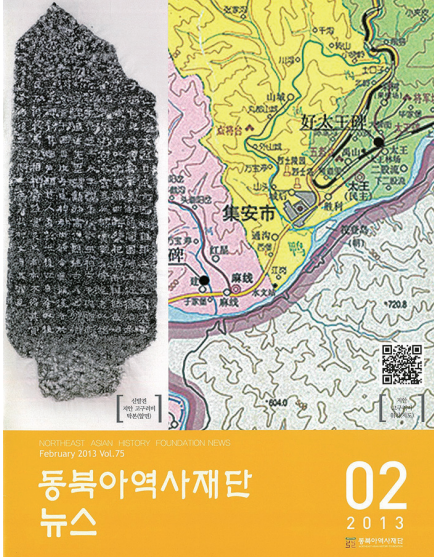
### 집안고구려비 발견 지점

『集安高句麗碑』(吉林大學出版社, 2013)

1 한 한국인 관광객이 이날의 탁본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링크를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2013. 3. 2)에 올려놓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열린 신라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중국인 연구자 송청요우(宋成有) 베이징(北京)대학 교수가 비의 발견을 알린 것이다. 이후 해를 넘긴 2013년 1월 16일 한국고대사학회에서 학회 홈페이지에 비의 발견 사실을 공고하였다(1월 4일 자 『中國文物報』의 내용을 옮긴 것). 한편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1월 15일 자 『新文化報』의 기사를 통해 비의 발견 사실을 파악하였고 이를 관계 부처에도 알렸다.

비의 발견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연구자들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한국고대사학회에서는 비의 내용을 분석하는 검토회의를 가지는 한



집안고구려비 발견 기사가 실린 『동북아역사재단뉴스』(2013.2)

편, 학회의 임원들이 중국 현지를 직접 답사하여 비의 발견 경위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쪽 연구 책임자인 경테화(耿鐵華) 교수와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향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성과를 발표할 것을 협의하고 초청장을 전달하였다.

2013년 3월 최초의 종합보고서인 『集安高句麗碑』(지린대학출판사)가 중국에서 배포되었고, 국내에는 4월 10일경에 반입되었다. 여기에서 비문의 전체 218자 가운데 156자를 판독한 중국 쪽 판독문이 공개되었고, 국내에서도 한국고대사학회가 중심이 되어 그때까지 확인된 탁본을 바탕으로 판독회를 진행하여 한국의 독자적인 판독문을 작성하였다. 이후로도 여러 연구자가 개별적 검토를 통해 각각의 판독 결과를 연구논문을 통해 공개하였다.

2013년 5월 1일 지안박물관이 신축 건물로 이전 개관하면서 집안고구려비가 일반에 공개되었다. 비는 박물관 중앙로비에 전시되었는데, 원래는 광개토왕비의 모형을 세울 예정이었다고 한다. 박물관 쪽에서 집안고구려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비의 공개가 알려지자마자 한국의 연구자들이 지안박물관을 방문했지만 전시대 주위 1m 거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박물관 관계자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 비문을 가까이에서 살펴거나 사진을 촬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 2. 집안고구려비의 현황과 연구 논점

집안고구려비는 후한(後漢)시기에 유행한, 비석 머리 모양이 삼각형인 규형비(圭形碑)다. 크기는 높이 173cm, 너비 60.6~66.5cm, 두께 12.5~21.5cm이며, 무게는 464.5kg이다. 돌의 표면을 가공해서 평편하게 하였고 몸들의 아래에는 비를 꽂기 위한 길이 15~19.5cm, 너비 42cm, 두께 21cm의 돌기가 있다. 앞면과 뒷면에 글씨를 새긴 양면비이다.

이러한 비의 모습은 광개토왕비나 충주고구려비가 비의 사면에 글씨를 새기고 비석의 머리 모양도 몽툭한 이른바 ‘석주형(石柱形)’인 것과 대비되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상대적으로 중국의 비석 형태를 많이 받아들인 것이 집안고구려비인데 고구려의 비석문화가 중국식에서 고구려 독자의 방식으로 변화한 것인지, 아니면 고구려 독자의 방식에서 중국식 비석 형태를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비문은 앞면에 10행 218자가 새겨져 있다. 뒷면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마모가 심해 판독이 어렵다. 비가 발견될 당시



집안고구려비 전면 사진(좌)과 탁본(우)

『集安高句麗碑』(吉林大學出版社, 2013)

앞면은 하천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어 뒷면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뒷면이 좀 더 심하게 마모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위적인 훼손 가능성 또한 제기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문의 글자는 처음 중국인 연구자들이 156자를 판독한 이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178자, 188자, 217자, 172자, 160자를 확인한 독자적인 판독안이 중국에서 나왔고, 한국에서도 183자, 185자로 판독하는 한편 지금까지도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판독안이 제시되고 있다. 비석 몸돌의 오른쪽 윗부분이 발견 당시 이미 깨져 있었고, 비면의 마모가 심한 데다가 원

래 글자가 얇게 새겨져 있었던 까닭으로 판독이 쉽지 않았다. 특히 한국인 연구자들의 경우 비문을 실제로 보고 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전고투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문의 내용은 고구려의 건국과 왕위 계승을 찬미한 부분(A)과 왕릉의 수묘제에 관련된 부분(B)으로 나누어지는데, 최근의 한국 쪽 연구성과를 반영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sup>2</sup>

A. □□□□ 때에 필연적으로 천도(天道)를 내려주시니, 스스로 원왕(元王)을 계승하여,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개창하셨도다. 일월(日月)의 아드님이시자 하백(河伯)의 후손으로서 신령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 나라를 건국하고 강토를 개척하셨다. 후사(後嗣)로 이어져 서로 계승하였다.

B-1. □□□□ 각 묘(墓)의 연호(烟戶)가 하류(河流)에 □하여 사시(四時)에 제사를 거행하였다. 그렇지만 세월이 오래되어 烟戶가 □□를 지킴에 연호(烟戶)가 열악해지고 쇠락하여 팔리거나 되팔리는 자가 많아졌다. 이에 수묘자(守墓者)를 □하여 □□에 새겼다. □□□△, 국강상태왕(國岡上太王), □平□△王神亡, ‘東西△□□□世室’을 지어 흥하게 하고(作興), “선성(先聖)의 공훈(功勳)이 아주 높고 매우 빛나며 고인(古人)의 굳센 의지

2 여호규, 2013,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한국고대사 연구』 70의 해석을 토대로 작성.

를 계승하였다”고 추술(追術)하였다.

B-2. 정□년에 호태□왕(好太□王)이 이르시기를 “무자(戊子)년에 율(律)을 정한 이래로 조정(內)에 교(教)하여 영(令)을 발포하여 다시 수복(修復)하였다. 각 선왕의 묘상(墓上)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두(烟戶頭) 20명의 이름을 새겨 후세에 전하여 보인다. 지금 이후로 수묘하는 백성(民)은 함부로 사거나 다시 서로 되팔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富足之者)라도 매매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영(令)을 어긴 자는 후세토록 □□를 이어받도록 하고, 비문을 보아 죄과(罪過)를 부여 한다”고 하셨다.

집안고구려비를 둘러싼 핵심 논점은 비석의 건립 시기와 성격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비석을 처음 세웠을 때는 비석을 세우게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세웠는지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그 부분이 깨지거나 마모되어 읽기 어려웠기 때문에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비석을 처음 세웠을 때는 비석을 세우게 한 사람이 누구이며 언제 세웠는지가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그 부분이 깨지거나 마모되어 읽기 어려웠기 때문에 논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

먼저 건립 시기의 경우 광개토왕대와 장수왕대 건립설로 나뉜다. 중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장수왕대 건립설이 우세한데 비문에서 장수왕의 재위 기간인 “정묘년(427년 또는 487년)에 돌을 새겼다(丁卯歲刊石)”는 내용을 판독한 것을 결정적 근거로 들었다. 또한 본문의 ‘국강상태왕’을 광개

토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비문에서 광개토왕을 시호(諡號)로 불렀으므로 자연스럽게 비는 광개토왕 사후에 건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 학계에서는 비가 장수왕대에 세워졌다고 보는 연구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丁卯歲刊石”이라는 판독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강상태왕’도 광개토왕이 아니라 고국원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비가 광개토왕대에 건립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많다.

집안고구려비가 광개토왕대에 건립되었다고 한 것은 이 비를 광개토왕이 시행한 특별한 정책의 결과물로 보기 때문이다. 그 정책은 광개토왕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sup>3</sup>

선조(先祖) 왕들 이래로 능묘에 석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수묘인 연호(烟戶)들이 뒤섞이게 되었다.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께서 선조 왕들을 위해 묘상(墓上)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한 왕께서 규정을 제정하시어, “수묘인을 이제부터 다시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며, 비록 부유한 자가 있을 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이지 못할 것이니,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판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 자는 자신이 수묘(守墓)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3 노태돈, 1992, 「광개토왕릉비」,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제1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의 해석을 토대로 작성.

수묘인(守墓人)이란 글자 뜻 그대로 묘지기를 말하는데 왕이나 귀족의 능묘를 지키고 관리하며 제사 등의 행사가 있을 때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다. 광개토왕은 선조의 왕릉을 관리(청소)하는 수묘인이 서로 뒤섞여 관리가 어렵게 된 것을 알고 각 왕릉에 소속 수묘인의 내역을 새긴 비석을 세워 착오가 없게 한 것이다. 한국 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때의 비석 중 하나가 집안고구려비였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경우 비의 성격은 자연히 ‘수묘비’가 된다. 하지만 광개토왕대 건립설을 지지하면서도 비의 성격을 수묘비가 아니라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비의 성격을 율령비(律令碑), 제도비(制度碑), 정률비(定律碑), 고계비(告誡碑), 추모왕 제사 관련비, 수묘정률비(守墓定律碑), 교령비(教令碑), 문고비(文告碑), 수묘제 시행 선포비, 수묘인 매매금지법 위반 시 강력 처벌을 경고하는 경고비(警告碑) 등 매우 다양하게 파악하는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주요 근거는 비문에 특정 왕에 대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었다. 광개토왕비의 내용처럼 각 왕의 묘에 하나의 수묘비가 세워졌다면 그 비에는 묘의 주인공인 특정 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당연한데 집안고구려비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심지어 해석에 따라서는 미천왕, 고국원왕, 광개토왕 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따라서 집안고구려비는 수묘제와 관련한 일반 법령을 기술했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마센구(麻線溝) 일대의 주요 왕릉 모두라고 했다. 장수왕대 건립설을 지지한 견해에서도 역시 비의 성격을 수묘비가 아닌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비의 성격을 수묘비로 보는 연구자들은 “각 선왕의 묘상(墓上)에 비석을 세우고 연호두(烟戶頭) 20명의 이름을 새겨 후세에 전하여 보인다”는 집안고구려비의 내용이 “선조왕들을 위해 묘상(墓上)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를 새겨 기록하여 착오가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는 광개토왕

비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비문에 특정 왕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은 그 내용이 마모되어 읽을 수 없는 비의 뒷면에 연호의 내역과 함께 적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중국 쪽 판독에 따르면 비석 뒷면에서 글자가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현재 앞면에 보이지 않는 중요 내용이 뒷면에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수묘비설의 경우에도 비의 발견 위치상 어느 왕릉의 수묘비인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연호두’의 해석 문제 등 앞에 놓인 난관을 완전하게 돌파한 것은 아니며, 이는 동시에 비(非)수묘비설이 설득력을 가지는 조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논쟁의 시제는 오늘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 3. 비문, 고대인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

사실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 광개토왕비에 분명 역대 왕릉에 수묘인의 내역을 적은 비를 세웠다고 했으니, 새로운 비가 발견되고 그 모습과 내용을 집안고구려비와 비교하면 비의 성격이 명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 덕분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관계 그리고 그 성격을 주제로 지금까지 100여 편이 넘는 논문을 써 낼 수 있었고, 각각의 논문을 탈고하는 시점까지는 자신이 고대인에게 던지고 또 들었다고 여긴 질문과 답변이 그들의 삶에 근접한 ‘그것’이라고 믿고 있다.

현대인의 관점을 그대로 고대인의 삶에 투영시켜 이해하는 것은 고대인의 삶을 오해하고 어떤 면에서는 왜곡하기 딱 좋은 위험한 태도일 수 있겠다. 하지만 어느 역사학자의 말처럼 “그때에도 삶의 조건이 요즘과

달랐을 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면 고대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지름길은 고대인이 살아온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앞에 놓여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집안고구려비를 포함해 고대인이 남긴 비문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다. 그 다리는 우리를,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돌에 명령을 새겨 남기게 했던 광개토왕이 향유했던 지배자의 자신(自信)과 비문의 내용에 자기는 물론 후손의 삶까지 규정되어야 했던 수묘인이 강제당한 피지배자의 비애(悲哀)로 안내한다. 또한 그것은 비단 문자의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안내가 아닐 수도 있다. 오늘의 우리가 비석 뒷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위적 훼손은 어쩌면 일종의 주홍글씨와도 같았던 연호의 내역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묘인 자손들의 흔적이었을지도 모른다.

비문이 전해주는 역사는 이처럼 고대인의 삶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연구자들이 비문을 읽고 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며,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기다리더라도 새로운 비문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까닭이기도 하다.



**위가야(魏加耶, Wee, Ka-ya)**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고대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백제사와 가야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해 왔다. 최근에는 상호 교류의 관점에서 고대 한반도와 일본열도 정치체들의 국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다.

# 충주고구려비의 발견과 논점

이규호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 1. 충주고구려비의 발견

1979년 4월 5일 당시 충주의 문화재 애호인 모 임이었던 예성동호회(현 예성문화연구회) 회원들은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현 충주시 중앙탑면)의 입석마을 입구에 문자가 새겨진 돌이 세워져 있다고 제보하였다. 충주고구려비가 발견된 마을 이름이 ‘입석’마을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비는 마을의 상징으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단국대 사학과는 공식 조사를 실시하였고, 1979년 6월 1일까지 7차에 걸친 공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탁본 작업을 비롯한 다방면의 조사 결과 이 입석은 고구려가 세운 비임이 확인되었다. 한반도 유일의 고구려비가 발견된 순간이었다.

이 비가 고구려에 의해 세워진 비로 확정된 것은 조사에서 밝혀진 비문의 내용 덕분이었는데,



예성동호회의 충주고구려비 조사(1979.2.24)

주된 근거는 아래와 같다.

- ① 판독한 비문의 서두에 ‘고려대왕’이라는 명문이 보이는데, 고려는 고구려를 가리킨다.
- ② 비문상에 보이는 관등은 모두 고구려에서 사용한 것이다.
- ③ 비문에 보이는 ‘고모루성’이라는 명칭이 광개토왕비에도 보이고 있다.
- ④ ‘신라토내(新羅土內)’라는 문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타국이 신라를 가리킬 때 쓴다.
- ⑤ 비의 형태와 서체가 광개토왕비와 유사하다.
- ⑥ 문헌사료상에서 장수왕대 고구려가 한강 유역까지 남하하였던 사실의 반영이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충주고구려비는 고구려가 세운 비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 당시 비가 소재했던 지역이 증원군이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증원고구려비’로 불렸으나, 증원군이 충주시와 통합되면서 ‘충주고구려비’로 이름이 바뀌었다. 비의 발견 이후 1979년과 2000년, 2019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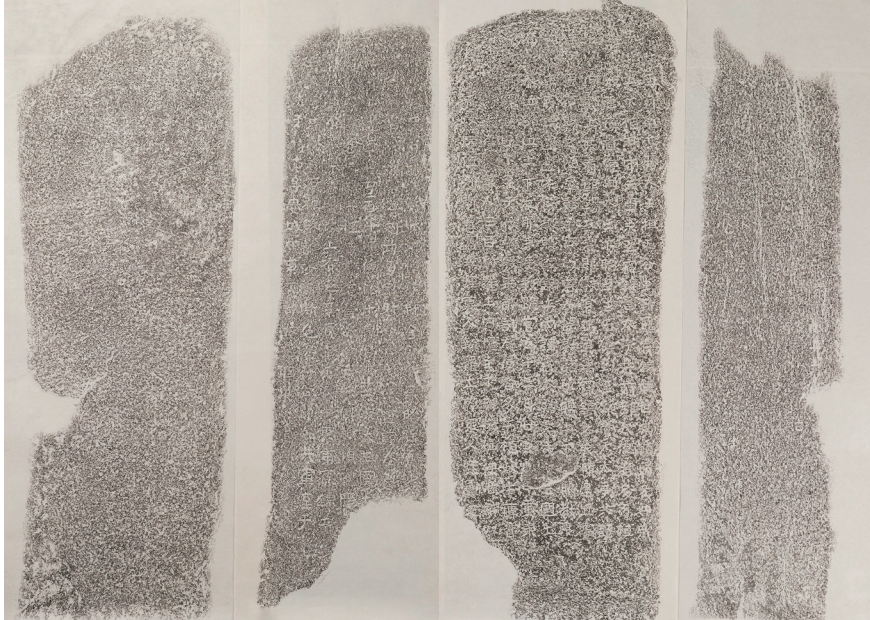
## 2. 비문의 내용과 주요 논점

발견 당시 비는 이끼가 많이 끼어서 비문의 판독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다. 조사 과정에서 이끼를 제거하여 비문의 내용을 알 수 있었지만, 세월이 오래 흐른 탓에 비면은 마모가 심하고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맥락을 분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았지만, 발견 이후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된 논점이 되었다.

### (1) 비는 전체 몇 면이고, 어디가 시작인가?

비의 형태는 전면과 후면이 넓고, 좌우 측면이 좁은 형태로서 전면과 좌우 측면 총 3면에 글자가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면이 비교적 많은 수의 글자가 판독되는 부분이고, 좌우 측면은 판독되는 글자 수가 적다. 우측면은 판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전면과 좌측면은 대체로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비문의 전체 면수와 시작면은 다음과 같이 상정해볼 수 있다.

첫째, 후면을 시작면으로 하여 우측면-전면-좌측면의 4면비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후면에는 판독할 수 있는 글자가 없지만 좌측면 7행의 하단부가 공란이라는 점에서 비문의 마지막 면으로 본다. 둘째, 글자가



충주고구려비 탁본(동북아역사재단 제공)

왼쪽부터 후면, 좌측면, 전면, 우측면

확인되는 3면만을 기준으로 하여 우측면을 시작으로 전면-좌측면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후면에 글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본래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해야 한다. 셋째, 전면 상단에 제액이 있다고 보고 전면을 시작면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현재 비의 후면에는 글자가 판독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견해든 후면은 가설로서 전제하고 있다. 다만 후면에도 비면을 다듬은 흔적이 있어, 글자가 원래부터 새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비문은 넓은 쪽에 새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4면 비라 할지라도 전면 내지 후면이 시작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비문 판독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비문의 시작이 어디인지도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비문의 시작면과 관련된 단서는 광개토왕비, 집안고구려비와 같은 여타 고구려비에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두 비는 서두에 왕실의 신성함을 먼저 내세운 후 전달하려는 바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 고구려비 역시 서두에는 왕실의 신성을 드러내는 서술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판독 가능한 3면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후면이 1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는 농묘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지닌 수묘비의 성격이 있는 데 반해, 충주고구려비는 기공비, 척경비(정계비), 순수비, 회맹비 등 다양한 성격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의 성격이 달라지면 비문의 구성이나 내용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2) 비는 언제 세워졌는가?

비문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가 언제 세워졌고, 어떠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일 것이다. 이를 파악하는 데 주된 단서가 되는 것은 비문에 새겨진 연호나 간지 등이다. 충주고구려비에도 비문의 건립연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가 있다. 전면 1행의 ‘五月中’, 7행의 ‘十二月廿三(또는 五, 七)日甲寅’, 좌측면 5행의 ‘辛酉’이다.

또한 비문의 내용 역시 건립연대를 비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면에는 5월 중에 고려대왕과 동이(신라)매금을 위시한 양국이 회맹의례를 맺고, 12월에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우벌성(于伐城)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좌측면에는 판독되는 글자가 많지 않아 구체적인 문맥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신유년(辛酉年)이 확인된다고 보면(이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인정 여부의 차이가 있다), 전면과는 다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문의 건립연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넷으로 나뉘어 있다.

#### ① 5세기 초반설

주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견해로 전면 7행의 간지가 주된 논거가 되었다. 해당 부분을 12월 25일 갑인으로 판독하여 403년으로 파악하고, 좌측면의 신유년을 421년으로 이해하여 5세기 초반으로 비정하거나, 11월 23일로 판독하여 408년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또한 장수왕대 태자 책립 기사가 없으므로 장수왕대를 연대에서 제외하거나, 태자가 되지 못하였더라도 장자였을 것이므로 태자와 같은 존재로 취급되었을 것이라 보는 등 비슷한 연대를 취신하면서도 동일한 대상에 대한 해석이 논자마다 다르다.

비문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가 언제 세워졌고, 어떠한 배경에 의해 만들어졌는가일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몇 차례 진행된 판독안에서는 25일보다는 23일이나 27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연대 비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비문의 내용이 광개토왕대에 해당한다면 당시 태자 책봉은 408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403년에는 태자가

등장할 수 없다. 설령 11월 23일로 판독하여 408년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오기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 ② 5세기 중반설

전면 7행의 간지를 12월 23일 갑인으로 판독하는 한편, 좌측면의 신유년에 대해서는 판독을 유보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에 맞는 연대는 449년(장수왕 39년)이 되며, 이때를 비문이 전하는 사건이 있었던 시점이자 비문이 건립된 해로 파악한다. 혹은 450년 7월에 실직(悉直: 강원도 삼척으로 비정)에서 사냥하던 고구려의 장수가 신라의 하슬라성주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비가 건립된 것으로 보아, 449년을 비문의 내용을 전하는 연대로, 450년을 비가 건립된 연대로 파악한다. 450년에 해당하는 『삼국사기』 눌지왕 34년 7월조에는 고구려와 신라가 우호를 닦았다는 기사가 있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 견해는 문헌에 나온 고구려와 신라 양국 간의 관계에 주의하면서 비문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비문의 내용과 건립연대를 449년과 450년으로 보는 경우 고려대왕조왕(高麗大王祖王)이라는 표현은 장수왕 한 명을 가리키게 되는데, 스스로를 조왕(祖王)이라 불렀을까 싶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들 견해에서는 좌측면의 신유년 판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신유년 판독이 인정된다면 연대 비정(특히 비의 건립연대)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③ 5세기 후반설

전면의 12월 23일 갑인과 좌측면 신유년의 판독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양자가 충족되는 해는 각각 480년과 481년이므로, 480년은 내

용연대가 되고 481년은 건립연대가 된다. 이 견해는 475년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킨 이후에야 충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야만 고구려와 신라 양국의 왕이 충주라는 접경지대에 와서 회맹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해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 과정 연구들에 의하면 이미 광개토왕대에 남한강 유역까지 장악했다고 보는 설도 있는 만큼 475년을 결정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또한 광개토왕비에 의하면 한성 함락 이전에도 고구려가 신라 구원군을 파견하고 있으므로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 지역을 거치지 않고 신라 영토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④ 절충설

5세기 중반설과 후반설의 절충안과 같은 견해로서 비문의 내용은 449년으로 파악하면서도, 실제 건립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1행에 ‘고려대왕조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현재 ‘고려대왕의 할아버지 왕’이라는 뜻이므로, 할아버지인 장수왕대 있었던 일을 회고하며 손자인 문자왕이 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비의 건립연대는 신유년으로 비정되는 481년이거나 그 이후가 된다. 이 견해는 문제가 되었던 신유년의 판독 여부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또한 『삼국사기』에는 문자왕 4년(495) 남쪽으로 순수한 기사가 있어 문헌사료에 의한 연대 비정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도 하다.

다만 5세기 후반이 되면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자왕 4년을 전후해서는 양국의 교전 기사

가 전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양국의 접경지대에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비문을 세우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요컨대, 비문은 모년 5월 고구려와 신라 양국 군주의 회맹과 12월의 후속 조치, 시기를 달리하는 그 이후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연대 비정에 상관없이 대체로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근래까지 학계의 연구성과였다. 그런데 2019년 진행된 충주고구려비의 3D 스캐닝 작업은 한동안 잠잠했던 충주고구려비의 이해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 3. 3D 스캐닝을 통한 새로운 판독과 견해

2019년 동북아역사재단은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대회를 계획하였고, 그와 동시에 3D 스캐닝 장비를 통한 비문의 새로운 판독을 시도하였다. 그간 비문의 판독은 탁본이나 고화질 사진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육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스캔 작업을 통한 판독은 동북아역사재단과

요컨대, 비문은 모년 5월 고구려와 신라 양국 군주의 회맹과 12월의 후속조치, 시기를 달리하는 그 이후의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진행된 충주고구려비 공동판독회(2019. 8. 22)

한국고대사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글자들이 새롭게 판독되거나 불확실한 판독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새로운 발견은 종래 전면의 1열로 파악되었던 부분 상단에서 글자와 자획을 발견한 것이었다.

새롭게 발견된 부분은 전면 2행과 8행에 걸쳐 있다고 보고되었는데, 일부 논자들은 이를 제액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전의 일부 연구에서도 전면 상단에 제액이 있었을 것이라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견해라는 점에서 이전과 결을 달리한다.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제액으로 판독되는 글자는 ‘永樂七年歲在丁酉’, 즉 광개토왕대의 연호인 영락 7년(397)을 뜻한다고 본다. 또한 이 견해에서는 종래 전면의 12월 23일 갑인을 12월 27일 경인(庚寅)으로 판독하여 영락 7년의 연대와 합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제액을 포함한 새로운 판독안이 나오으로써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충주고구려비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았던 5세기 중반설과 후반설에 새로운 도전자로서 4세기 후반설이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새 판독안이 제기된 이후 충주고구려비의 건립을

광개토왕대로 비정한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발견은 그동안 학계의 난제였던 충주고구려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여줄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새로운 견해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 4. 충주고구려비의 향후 과제

충주고구려비에서 새롭게 판독된 부분이 비문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비상하게 높여준 것만은 확실하다. 다만 하나의 입론이 보편적인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제반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작업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동시대 비문 등을 포함한 제반 사례와 형식, 내용상의 비교가 그것이다.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사료의 부족은 많은 문제점과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의 발견이나 판독 등은 연구의 지평을 넓힐 소중한 기회가 된다. 비석 하나가 당시의 상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통해서 모자이크와 같은 고대 사회의 모습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는 것도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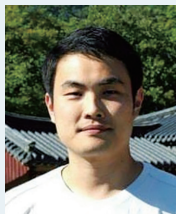
이 점에서 이번 충주고구려비의 3D 스캐닝 작업

제약을 포함한 새로운 판독안이 나오으로써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충주고구려비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충주고구려비의  
가치는 연구자뿐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을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다.

은 사료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도였음이 분명하다. 오랜 세월을 거쳐 마모된 금석문 자료를 읽어내는 데 보다 객관적인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기왕의 금석문이나 향후 발견된 금석문 자료의 판독에 이와 같은 작업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담아본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음에도 애초에 비의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만큼 새로운 시도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해결해나가면 충주고구려비의 이해에 대한, 더 나아가 고구려비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충주고구려비의 가치는 연구자뿐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을 통해 더욱 빛날 수 있다.



**이규호(李圭鎬, Lee, Gyu-Ho)**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

동국대학교 사학과에서 ‘고구려 관제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고구려와 주변국이 주고받은 영향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최신 과학적 조사를 통한 충주고구려비 연구

고광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979년 2월 24일, 한국 고대사 연구에 있어 커다란 사건이 있었다. 충청북도 증원군 가금면 용전리에 있는 입석마을(현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감노로) 어귀에서 지역의 문화재 애호가들에 의해 글자가 새겨진 비석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단국대학교 박물관이 주동이 되어 학술조사단을 꾸려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고구려비로 밝혀졌다. 비문은 고구려왕을 ‘고려대왕(高麗大王)’, 신라왕을 ‘동이매금(東夷寐錦)’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여형여제(如兄如弟)’로 기술하는 등 고구려사는 물론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비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의 고구려 비석이며 고구려 남진정책 등의 증거라는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 205호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최초 발견 지점 부근에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을 지어 보호 전시하고 있다.

비는 건립 후 1600년의 세월 동안 마모되어 탁본이나 육안 관찰만으로는 정확한 자형을 읽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비의 발견 당시부터 비문의 판독에 논란이 많았고 발견 20주년이 되던 2000년에는 적외선 사진을 촬영하는 등 학자들이 4박 5일 동안 비가 있는 현지에 모여 판독회를 진행하였으나 판독문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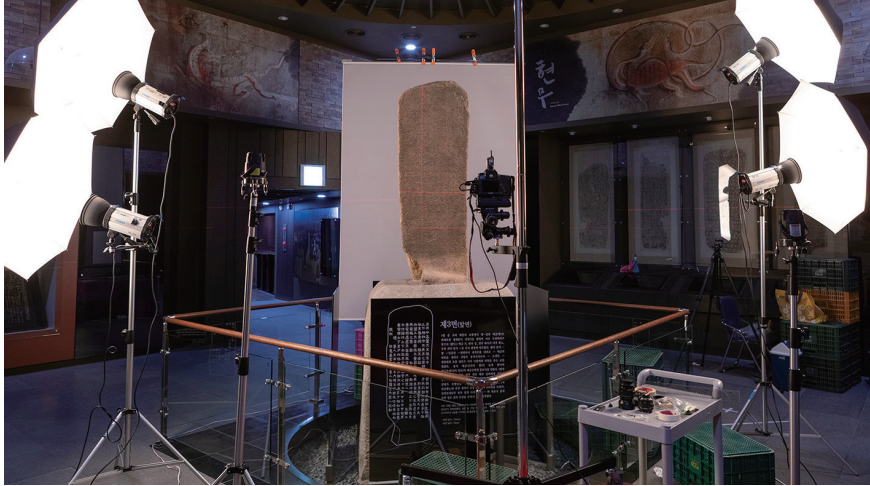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2019년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맞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고대사학회 등과 비문의 공동 판독회와 학술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논문집 『충주고구려비 연구』(2020)와 자료집 『忠州高句麗碑』(2021)를 발간하였다.

충주고구려비 과학적 조사의 기본 방향은 크게 비의 디지털 사진 촬영, 탁본의 제작 및 화상 처리, RTI 이미지 캡처, 3차원 스캐닝 및 디지털 가시화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세부적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사진 촬영

먼저 충주고구려비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정도의 초고해상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였다. 카메라는 5,000만 화소 이상으로 전용

동북아역사재단은 2019년 충주고구려비 발견 40주년을 맞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고대사학회 등과 비문의 공동판독회와 학술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논문집 『충주고구려비 연구』(2020)와 자료집 『忠州高句麗碑』(2021)를 발간하였다.



충주고구려비의 디지털 사진 촬영(2019.5.27)

고해상 사진은  
인위적인 필획과  
자연 크랙을  
구분하는 등 비문  
판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주고구려비의  
전체적인 형태를  
초고해상도로 찍은  
최초의 디지털  
사진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이 내장된 바디에 100mm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였다. 조명은 umbrella 디퓨저를 장착한 모노타입 600W 2개씩을 좌우에 각각 설치하여 비의 입체감을 살리면서 조명비에 따른 밝기의 차를 없게 하는데 주력하였다.

비면의 디지털 사진은 먼저 4면의 각 면을 14컷으로 분할하여 촬영하고 이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하였다. 실제와 같은 초고해상도 파일을 확보함으로써 동일한 크기로 비면 사진을 프린트할 수 있게 되었다. 고해상 사진은 인위적인 필획과 자연 크랙을 구분하는 등 비문 판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탁본 제작(2019. 6. 17)

아니라 충주고구려비의 전체적인 형태를 초고해상도로 찍은 최초의 디지털 사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2. 탁본의 제작 및 화상 처리

비문 연구에서 양질의 탁본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9년 충주고구려비 연구에서는 문화재청이 같은 해에 불교중앙박물관 측에 의뢰하여 시행한 금석문 탁본조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최신 탁본을 활용할 수 있었다.

탁본은 습식방식으로 4면을 한 벌로 모두 두 벌을 제작하였다. 물이 문

촬영한 탁본의 사진 파일을 포토샵에서 ‘흑백’, ‘반전’ 등 다양하게 처리함으로써 비문의 판독을 위한 최상의 효과를 추구하였다.

은 비면에 탁지가 부착된 상태에서 나타난 글자와 먹봉을 두드려 먹의 농담에 따라 단계별로 나타나는 글자의 상태를 촬영하였다. 특히 먹봉을 두드리는 작업이 완료된 후 탁지를 떼어내지 않고 비면에 부착한 채로 조명을 처리하여 촬영한 사진에서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촬영한 탁본의 사진 파일을 포토샵에서 ‘흑백’, ‘반전’ 등 다양하게 처리함으로써 비문의 판독을 위한 최상의 효과를 추구하였다.

이들 탁본 중 비면에 부착된 상태에서 촬영한 탁본은 배접하여 불교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나머지 한 벌은 배접하지 않은 상태로 문화재청에 사업 결과물로 납품되었다.

### 3. RTI 이미지 캡처

2019년 충주고구려비 연구에서는 첨단기법의 반사율 변환 이미징(RTI: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기술을 최초로 적용하였다. RTI는 다광원 이미징 기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비추어 촬영함으로써 빛의 방향에 따라 글자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의 4면 중 폭이 넓은 전면과 후면에 대해서는 카메라를 가로로 해서 상·중·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촬영하고, 좌

RTI는 다광원 이미징 기법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빛을 비추어 촬영함으로써 빛의 방향에 따라 글자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측면과 우측면은 상·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촬영하되 카메라의 방향을 90도 회전해 세로로 놓고 프레임 내에서 많은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높은 화소 수를 유지하도록 했다.

RTI 파일은 전용 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 광원의 위치 제어 기능, 줌 기능, 랜더링 모드 변경 기능 등을 지원한다. RTI 데이터는 기존에 현지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서 조사자가 직접 조명을 비추가며 비문을 관찰하던 수고를 덜 수 있다.

2021년에 발간한 자료집 『忠州高句麗碑』에는 필획 부분과 비면의 요철 구분이 쉽지 않고 오히려 컬러가 보일 때 자형에 대한 인식이 쉽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렌더링 모드 중에서 Diffuse Gain을 사용해 시각화한 이미지들을 첨부했다.

#### 4. 3차원 스캐닝 및 디지털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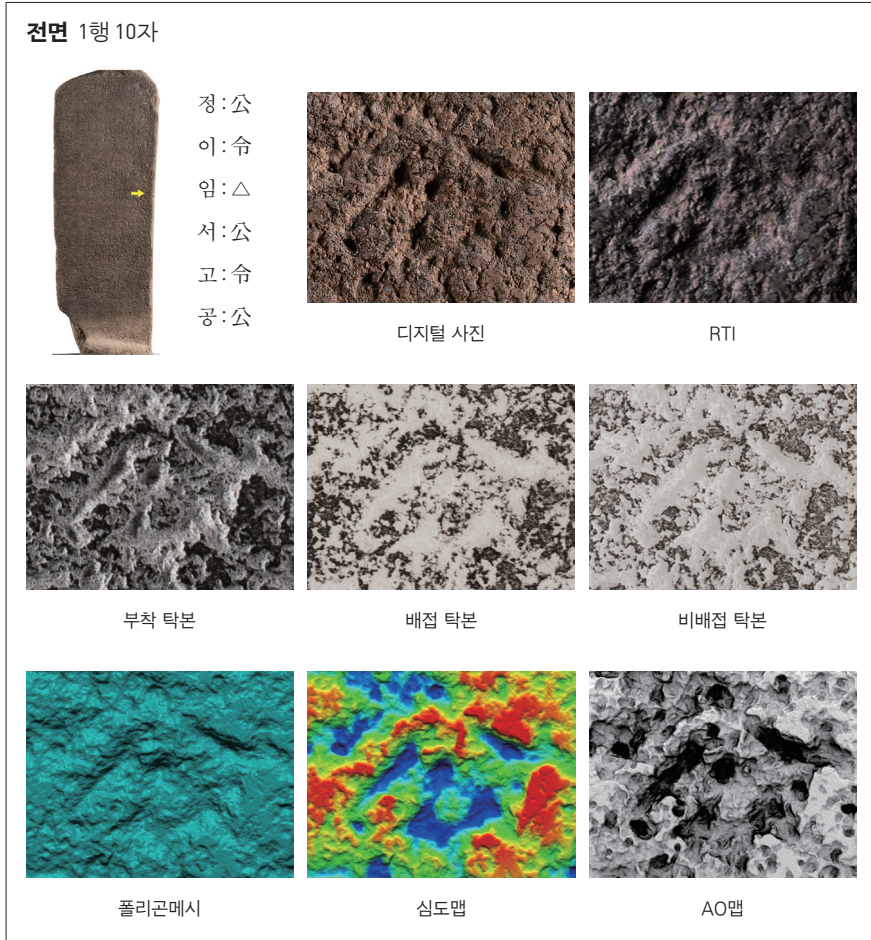
충주고구려비 과학적 조사의 주요 내용인 3차원 스캐닝에서는 다양한 제원의 스캐너를 사용하였다. 핸드헬드형 중정밀스캐닝, 핸드헬드형 고정밀스캐닝, 고정형 고정밀스캐닝, 고정형 초고정밀스캐닝 등의 방식으로 비의 3차원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3차원 스캐닝을 통해 완성된 디지털 모델은 비의 형상과 글자가 양호하게 표현되었으



RTI 이미지 캡처(2019. 8. 12)



3차원 스캐닝(2019. 5. 20)



충주고구려비 문자 이미지 비교(전면 1행 10자 '公')

며 폴리곤메시와 RGB 텍스처매핑 결과 모두 뛰어난 품질을 보였다. 3차원 스캐닝 결과는 정밀 실측, 디지털 판독 및 3차원 프린팅 복제품 제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비면의 스캔 파일에서 각각의

3차원 스캐닝 결과는 정밀 실측, 디지털 판독 및 3차원 프린팅 복제품 제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비면의 스캔 파일에서 각각의 글자를 잘라내어 다양한 방법으로 렌더링함으로써 육안으로 잘 구분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도 글자의 흔적이나 필획의 깊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글자를 잘라내어 다양한 방법으로 렌더링함으로써 육안으로 잘 구분할 수 없었던 부분에서도 글자의 흔적이나 필획의 깊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2021년에 발간한 자료집 『忠州高句麗碑』에는 공동판독회에서 확인한 396자에 대해 각각의 글자마다 디지털 사진, RTI, 부착·배접·비배접 탁본 3종, 3D 가시화 폴리곤메시·심도맵·AO맵 3종 등 모두 8종류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직접 자형을 비교하여 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 연구성과 및 제안

2019년 충주고구려비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세 번에 걸쳐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고대사학회 등이 함께 수행한 충주고구려비의 공동판독회에서는 기존에 판독하지 못했던 4개 글자를 새롭게 확정하였고, 28개 글자가 처음 제시되었다. 1979년 최초 발견되었을 때의 판독문과 2000년 고구려연구회의 판독문에서 이견이 있었던 전면에서 68자, 좌측면에서 20자가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각각 한 글자로 확정되었다.

## 포커스

10	9	8	7	6	5	4	3	2	1	
×	×	丁酉	在	歲	年	七	樂	永	×	題額
×	×	×	×	×	×	×	×	×	×	
△	德	夷	大	夷	伊/用	向	奴	上	五	①



### 충주고구려비 제액 판독 결과

이번 연구의 의미 있는 성과 중에는 제액과 간지에 대한 새로운 판독문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글자의 구체적인 자형은 물론 존재 유무조차도 설왕설래하였던 비의 전면 상단에서 ‘永樂七年歲在丁酉’ 여덟 글자를 새로 판독하였다. 또 전면 7행에서 기존에 ‘十二月廿三(五)日甲寅’으로 읽었던 것을 ‘十二月廿七日庚寅’으로 수정하였으며, 좌측면 3행에서 ‘辛酉年’으로 판독하여 비의 연대 추정의 주요한 단서로 삼았던 글자를 ‘功二百六十’으로 새롭게 판독하였다.

이 판독문에 의하면 그간 충주고구려비 연구에서 논란이 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문의 시작면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전면 상단 부분에서 ‘永



『충주고구려비 연구』(2020), 『忠州高句麗碑』(2021)

樂七年歲在丁酉'라는 연도가 확인되고 본문의 '五月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면을 제1면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또한 충주고구려비의 연대에 관해서는 5세기 이후 광개토태왕부터 6세기 문자왕 때까지 다양하게 추정하였으나 '永樂七年'이라는 연대가 확인된 만큼 비는 397년 혹은 이와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충주고구려비가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태왕비보다도 더 먼저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계에서는 399년 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가 고구려에 원군을 청하였고 그 이듬해에 광개토태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왜를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한 것을 계기로 신라가 고구려의 속국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이 비가 397년경에 세워진 것이라면 이미 그 이전부터

신라는 고구려에 예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되어 그간 고구려의 남방 진출에 대해 논의된 상당 부분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충주고구려비 연구는 IT 기술의 도움이 컸는데 역사나 고고학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대 금석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사실 충주고구려비의 제액 부분은 1979년 처음 발견된 당시부터 몇몇 학자들이 언급하였으나 이후 이상하게도 학계에서 도외시되었는데 이번에 글자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이렇듯 학술연구에서 통설화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특히 금석문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그 판독에 따라 언제든지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알려진 고대 금석문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 판독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글자를 읽어낼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고대사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사실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다양한 성과물은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한국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금석문 전용 온라인 플

충주고구려비 연구는  
IT 기술의 도움이  
컸는데 역사나  
고고학 분야에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고대  
금석문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 포커스

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 금석문들을 추가하고 한국 고대 금석문 전반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금석문 연구의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 고광의(高光儀, Ko, Kwang-eui)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중국 연변대학에서 세계사(한국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아시아 금석문 및 서법문자학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최근에는 광개토태왕비와 충주고구려비 등의 과학적 조사를 비롯하여 고구려 문자문화사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무자비(無字碑)

## 측천무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글자 없는 비’

홍성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측천무후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여결 중의 여결일 것이다. 당 고종의 황후라는 지위에서 남편이 죽은 뒤 나라를 빼앗아 스스로 황제가 되었으며 나라 이름을 주(周)로 바꿨다.

### 1. 무조가 황후로 책립되기까지

측천무후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여결 중의 여결일 것이다. 당 고종의 황후라는 지위에서 남편이 죽은 뒤 나라를 빼앗아 스스로 황제가 되었으며 나라 이름을 주(周)로 바꿨다. 중국에서는 측천무후 외에 한 고조의 황후 여씨(呂氏), 청 함풍제(咸豐帝)의 후궁이었던 서태후(西太后) 등을 최고의 여결로 꼽는다. 이들 모두 정치를 전횡해서 상당한 위세를 떨쳤으나, 명실공히 군주가 되어 대제국을 통치했던 측천무후에 비교하면 격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측천무후의 본명은 무조(武照)이다. 그녀의 출생 시기는 이설이 있지만, 대체로 정관(貞觀) 2년(628)으로 보고 있다. 무조의 아버지 무사확(無士勳)은 병주(并州) 사람으로 목재의 운반 및 판매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당 고조가 수에 반기를 들었을 때 무사확은 고조의 부하가 되어 공을 세



측천무후

바이두(baidu.com)

왔고, 이주도독(利州都督)에 임명되었다. 무조는 아버지가 이주도독 시절에 그 부임지였던 이주(현재의 쓰촨성)에서 태어났다.

측천무후에 관한 일화로 그녀가 아직 젖먹이일 때 아버지 무사확이 그녀를 남자아이로 변장시켜서 관상가 원천강(袁天綱)에게 관상을 보게 한 적이 있다. 원천강은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고 비범한 상이라고 감탄하면서 “용의 눈동자에 봉황의 머리다. 귀함이 극에 달하니, 만약 여자였다면 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무조는 아름답게 자라났고, 14세의 나이에 당 태종의 후궁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정관 23년(649)에 태종이 붕어하자, 그녀는 비구니가 되어 장안의 감업사(感業寺)로 보내졌다. 그녀는 태종의 총애를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몰래 황태자와 사랑을 하게 된 듯하다. 선황제의 기일에 감업사로 참배를 갔던 새 황제 고종은 그곳에서 비구니가 된 무조를 만났다고

전한다.

한편, 이 무렵 고종의 주변에서는 왕황후(王皇后)와 소숙비(蕭淑妃) 사이에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고종의 총애가 소숙비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왕황후는 무조를 환속시켜 입궁시키라고 하여 고종의 환심을 샀고, 이를 통해 고종의 소숙비에 대한 총애를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왕황후는 알았을까? 결국 고종의 총애는 무조에게 쏠려 소숙비도 왕황후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영휘(永徽) 6년(655) 10월에 고종은 조칙을 내려 마침내 왕황후를 폐하고 무조를 황후로 들이게 된다.

## 2. 당의 최대 판도 형성

고종이 황태자로서 제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는 재임 기간에도 계속 병을 달고 살았다. 그러한 상태에서도 그는 고구려에 원정군을 보냈다. 고구려 원정은 고종에게 주어진 숙제였다.

고구려는 만주 동남부에서 한반도 북부에 걸쳐서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로, 당시 한반도의 평양에 수도를 두고 있었다. 고구려가 중국에 대항하는 기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 수(隋) 때부터였다. 수가 중국을 통일하자 그전부터 수의 세력에 민감해 있던 고구려는 북방 초원지대를 지배하고 있던 돌궐과 만주 동부의 삼림지대를 점령하고 있던 말갈 등과 연대해서 수에 압박을 가해 왔다. 동북쪽의 근심을 없애려고 생각한 수는 고구려 원정을 반복했지만, 불충분한 사전 조사와 그 밖의 이유로 실패했다. 그 일이 수 왕조의 멸망을 앞당긴 한 원인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 태종은 체면 때문에라도 수가 이루지 못했던 고구려 원정을 완수해

내야만 했다. 그러나 고구려가 백제와 연합하여 대항하였으므로 당군은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 그토록 강한 태종도 자신의 경력에 어울리지 않는 실패의 기록만을 남긴 채 숨을 거두었다. 고종이 아버지 태종의 뜻을 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자 다짐했던 것은 전후 사정상 당연했다.

고종은 이미 무씨 책봉의 문제로 복잡했던 영휘 6년 초부터 계속해서 고구려 원정군을 보내고 있었다. 태종 때부터 당과 동맹을 맺은 신라가 고구려, 백제, 말갈의 연합군대에게 북쪽 경계 지역을 침범당해 원조를 요청해 왔을 때부터였다. 현경(顯慶) 5년(660), 고종은 산둥반도로부터 해로를 따라 소정방(蘇定方), 유인궤(劉仁軌) 등이 이끄는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군과 함께 먼저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고구려 원정군은 계속되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유인궤는 신라군과 손잡고 왜의 지원을 얻어 회복하려던 백제를 다시 공격했다. 그리하여 용삭(龍朔) 3년(663)에 백제와 왜 연합군을 완전히 궤멸시켰다.

당은 그 사이에도 고구려를 공격했으며, 소정방은 한때 평양을 포위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로 끝났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총장(總章) 원년(668)에 고구려의 내분을 틈타 요동 방면을 정복하고, 나아가 평양을 함락시킴으로써 마침내 고구려 토벌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해서 당은 동북 지역의 강국을 평정하는 데 성공했다.

당은 9년 전인 현경 2년(657)에 서돌궐을 멸망시켰다. 북방 초원지대를 지배하던 동돌궐은 이미 태종 시대에 멸망했지만, 소그디아나 지방을 본거지로 해서 신장(新疆) 지역을 영유하고 있던 서돌궐도 소정방 등의 분투 끝에 멸망하였다. 서돌궐·고구려 정복은 고종 시대에 이룬 빛나는 공적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측천무후가 고종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공적은 측천무후에게 돌려야 할 지도 모르겠다.

### 3. 문자의 영적인 힘을 믿었던 측천무후

고종은 무후 책립 다음해에 영휘에서 ‘경사스 러움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의 현경(顯慶)으로 개 원을 하였는데, 아마도 이는 무후의 의견을 반영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고종은 통치 34년 동안 자 주 연호를 바꾸었다. 영휘(永徽, 650~656)에서 홍 도(弘道, 683~684)까지 13번이나 연호를 고쳤다. 이는 고종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측천무 후의 취향이 더 큰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무후가 황위에 있던 기간 을 전후하여 광택(光宅, 684~685)에서 장안(長安, 701~704)까지 16번을 고쳤기 때문이다.

원래 연호란 황제가 정치의 이상을 표현하거나, 으레 기념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장래에 그 기운 을 널리 퍼뜨리고 싶다는 기분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경사스러운 단어를 선택한다. 그렇 지만 무후는 누구보다 문자 그 자체의 영적인 힘을 믿었던 듯하다. 문자를 바꾸면 그 본질까지도 변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후술 할 측천문자의 창제까지 이어진다.

서돌궐·고구려  
정복은 고종 시대에  
이룬 빛나는  
공적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측천무후가 고종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공적은  
측천무후에게 돌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상원(上元) 원년(674) 8월, 무후는 천후(天后)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고, 병약한 고종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기 시작하였다. 고종의 병세는 그 후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못하였고, 결국 영순(永淳) 원년(682)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고종의 뒤를 이어 중종(中宗)이 즉위하였지만, 실권은 전부 황태후에게 있었다. 측천무후는 중종을 즉위한 지 54일 만에 폐위시키고, 예종(睿宗)을 황제로 즉위시켰다. 이후 그녀는 밀고제도를 활용하여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본인의 권력을 공고히 해나갔다.

#### 4. 측천문자의 창제

무후는 누구보다  
문자 그 자체의  
영적인 힘을  
믿었던 듯하다.  
문자를 바꾸면 그  
본질까지도 변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후술할  
측천문자의 창제까지  
이어진다.

재초(載初) 원년(689)에 측천이 새로운 문자를 제정하였는데, 이를 ‘측천문자’라고 한다. 측천문자의 수는 현재까지 17자 정도가 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0자 이상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공문서 등은 측천문자로 기록해야만 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묘지(墓誌)나 고사본에 이 문자가 기록되어 전해져 오고 있다.

10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중국 주변의 이민족 왕조에서는 문자 제정이 유행하였다. 요(遼)에서 거란(契丹)문자, 금(金)에서 여진(女眞)문자, 서

國 囡	星 ○	照 罌	地 坳	日 𠃉	月 <sub>1</sub> ☯
月 <sub>2</sub> 𠃉	天 𠃉	人 𠃉	年 𠃉	臣 𠃉	正 𠃉
聖 𠃉	證 𠃉	載 𠃉	授 𠃉	君 𠃉	初 𠃉

측천문자

하(西夏)에서 서하문자, 그리고 원(元)에서 파스파문자가 제정되었다. 그 가운데 파스파문자가 티베트문자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제외하면, 다른 문자들은 모두 한자에 변형을 가하면서 만들었다. 이러한 이민족 왕조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한족 왕조에서 한자를 기초로 새로운 글자를 제정한 예는 드물고, 더욱이 여성 권력자의 발의에 의해 제정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다.

측천문자는 종래의 문자보다 획수가 많고 장식적이며 일종의 신비함조차 갖고 있다. 즉, 측천문자는 결코 오늘날 중국의 간체자처럼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만든 문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문자는 고문(古文)이나 전문(篆文) 등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완전한 창작도 있으며, 또한 양쪽의 중간 형태도 있어 가지각색이다. ‘일인대길(一人大吉)’이라 쓰고 ‘군(君)’이라는 글자로 한다든지, ‘영주구왕(永主久王)’을 ‘증(證)’자로 하는 것은 창작 같다.

또 ‘조(罌)’는 그녀의 이름인 ‘조(照)’를 대신하는 글자로, 하늘(空)을 밝

계(明)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하늘(空)에 떠 있는 해(日)와 달(月)의 빛을 합한다는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창작 문자이다. 이처럼 측천무후는 문자의 신비한 힘을 믿었다. 조(照) 자 외에도 일(日), 월(月), 천(天), 지(地), 성(聖), 군(君), 신(臣) 등의 글자, 그리고 연호에 사용하는 글자에 한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다. 이는 문자를 바꾸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야말로 무 태후에 의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재초 원년 9월(690)에 측천무후는 못 신하의 청원을 받아들여 당을 폐하고 국호를 주(周)로 하며 천수(天授) 원년으로 개원한다는 것 등을 선포하였다.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황제의 탄생으로, 당시 그녀의 나이 63세였다.

## 5. 측천무후의 죽음과 무자비(無字碑)

측천무후는 중국 유일의 여황제가 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그가 세운 무주(武周) 정권의 후계를 공고히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 신룡(神龍) 2년(706) 5월, 측천무후는 결국 친아들인 중종에게 양위를 하였다. 그리고 11월에 그녀가 죽자 생전의 바람대로 고종의 황후로서 남편이 잠든 건릉(乾陵)에 안치되었다. 당으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무주 왕조를 세우고 유일의 여황제로 등극하였지만, 최후의 귀착지가 당의 황릉인 건릉인 것이다.

오늘날 건릉 앞에는 큰 석비가 양측에 서 있다. 높이가 6.3미터, 폭이 2미터 가까이 된다. 이 중에서 길 서쪽에 있는 비가 술성기비(述聖紀碑)이다. 고종이 매장된 문명(文明) 원년(648) 8월에, 측천무후가 고종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글을 지었고, 아직 실각하기 전의 중종이 글을 썼다.

그리고 동쪽의 비가 무자비(無字碑)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측천무후의 비이다. 원래 이 거대한 비에는 앞면과 뒷면에 한 글자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여기에는 무후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측천무후의 비는 ‘글자 없는 비’여야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주로 언급된다. 하나는 자신이 이뤄낸 업적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는 설이고, 또 하나는 그 평가를 후세에 맡기기 위해서라는 설이다. 아마도 그녀는 후세 남성 지식인들이 자신을 폄훼할 것이라고 예감했을지도 모른다.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녀의 공덕에 대한 최대한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후대 역사서에서 측천무후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신당서』는 측천을 가리켜 ‘임금을 시해하고 국가를 빼앗은 자’라고 평했다. 이에 반해 당 덕종 시대의 명신인 육지(陸贄)는 측천이 대범한 인재 등용을 하고 그 성적으로 확실하게 상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녀를 칭찬했다. 남송의 홍매(洪邁)는 그녀를 한 무제와 비교하며 ‘사리에 어둡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청의 조익(趙翼)은 그녀가 간언을 잘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여성 가운데 뛰어난 군주’라고 하

왜 측천무후의 비는 ‘글자 없는 비’여야만 했을까? ...  
하나는 자신이 이뤄낸 업적이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라는 설이고, 또 하나는 그 평가를 후세에 맡기기 위해서라는 설이다.

## 포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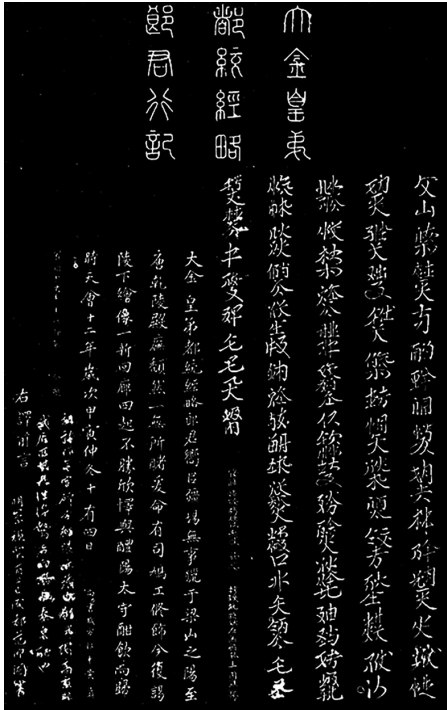


촉천무후의 무자비

바이두(baidu.com)

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는 『신당서』 등이 후세에 끼친 영향력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하다.

세월이 흘러 무자비는 새로운 전개를 맞이한다. 무자비가 세워진 지 400여 년이 지난 금 천회(天會) 12년(1134)에 금 황제의 동생이 양산(梁山)에서 사냥을 하고 나서, 그 사실을 무자비에 새겨 넣었다. ‘글자 없는 비’가 ‘글자 있는 비’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 글은 「대금황제 도통경략 낭군행기(大金皇弟都統經略郎君行記)」(줄여서 「낭군행기」)라고 한다. 이 글은 거란소자(契丹小字)로 쓰인 거란문과 한문이 병기되어 있는데, 비문 말미에 ‘오른쪽의 한문은 앞의 거란문을 번역한 것이다(右譯前言)’라고 하여



「대금황제 도통경락 낭군행기」 탁본

칭게르테이(清格爾泰)·오영철(吳英喆)·길여하(吉如何), 『契丹小字再研究』 1,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17, 610쪽.

거란문-한문 사이의 대역(對譯)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란문-한문 대역자료는 「낭군행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가지는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낭군행기」를 연구하면서 거란문자(소자)를 해독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2년 현재 거란소자의 해독이 상당수 가능해졌다.

생각해보면 측천무후는 문자와 많은 연관을 가진 인물이다. 문자의 영적인 힘을 믿은 측천무후 자신은 물론, 그녀가 제정한 독자적인 문자인 ‘측천문자’, 그녀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글자 없는 비인 ‘무자비’,

---

## 포커스

400여 년 뒤에 무자비에 새겨진 「낭군행기」, 그리고 이를 통한 거란문자의 해독까지! 무자비는 지금도 건릉 앞에 서 있으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홍성민(洪性珉, Hong, Sungmi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2017년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일본 와세다대학 종합인문학센터 조교, 동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동 센터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2020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소개

박수진 성북문화원 부장

## 1. 울진으로 가는 길

울진은 어디에서 가도 먼 곳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울진 사람에게 들은 말이니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다. 요새 잘 되어 있는 지도에서 검색을 해 보았다. 모두 시청 기준이고, 차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부산에서 3시간 12분, 대구에서 2시간 32분, 서울에서는 3시간 15분이 걸린다. 잘 닦여진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어디서 가도 먼 곳'이란 말이 실감 난다.

울진이 멀게 느껴지는 것은 지형 때문이다.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울진은 지금도 직접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없다. 그 아래의 영덕은 2016년 서산영덕고속도로가 영덕까지 이어지며 상주-안동과 이어졌지만, 내륙에서 울진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36번 국도 하나뿐이다. 20년 전에 울진을 갔을 때는 이 36번 국도를 넘었다. 높은 태백산맥

울진은 어디에서  
가도 먼 곳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울진 사람에게 들은  
말이니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닐 것이다.

## 체험! 역사현장



포항에서 울진으로 가는 길

을 굽이굽이 넘었는데, 운전자는 물론이거니와 타고 있는 사람도 지칠 지경이었다. 길에는 혼한 가로등 하나 없어 밤길이 무서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울진을 찾은 2020년은 달랐다. 여전히 국도를 타고 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경주에서 포항을 거쳐 울진으로 향했다. 휴가였는데 일정을 그렇게 잡았다. 경주에서는 감은사지와 국립경주박물관, 대릉원과 석굴암, 불국사를 봤고, 포항에서는 포항냉수리신라비(이하 냉수리비)를 보고 울진으로 가는, 휴가라기보다 답사에 가까운 이 일정이 가능했던 것은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7번 국도 때문이었다.

7번 국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에 가깝다. 경주에서 포항, 울진을 거쳐 강릉, 삼척으로 가는 이 동해안의 길에는 크게 막힘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동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해졌지만, 예전에는 경주에서 북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신라는 일찍부터 이 길을 따라 북쪽으로 진출했다. 지금의 삼

## 체험! 역사현장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외관

척 지역에 있던 실직국(悉直國)이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기록은 파사이사금 23년(102)에 등장한다. 포항의 냉수리비와 울진의 봉평비가 이 길목에 만들어진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였다.

크게 막힘이 없는 길이였지만 포항에서 울진까지는 2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시간이 가느라 몰랐다. 가는 길에 종종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득, 이 길을 따라 북으로 가던 신라의 병사들도 이 풍경에 행군의 고단함을 조금은 잊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에 도착했다. 자원봉사를 하는 전시해설가가 다소 어색하게 반기며 말했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는 사람이 잘 안 찾는 곳인데…”

## 2. 울진봉평리신라비

조금은 먼 그곳까지 간 것은 오직 울진봉평리신라비(이하 봉평비)를 보기 위해서였다.

이 비가 발견된 것은 1988년의 일이다. 논을 객토하던 한 농부가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학자들이 조사하며 이것이 법흥왕 11년(524)에 만들어진 비석이었음이 확인되었다. 땅에 묻힌 덕에 비석의 원 모양은 잘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1500년 가까운 세월이 풍화되고 마모되어 몇몇 글자는 알아볼 수 없었다. 그 알아볼 수 없는 몇몇 글자는 이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의 처벌 내용과 그 처벌을 결정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처벌의 주체는 법흥왕과 13명의 신하들이다. 법흥왕은 여기서 모즉지매금왕(牟卽智寐錦王)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그의 이름은 중국 사서에 는 모진(募秦)으로 나오고, 다른 금석문에서는 무즉지(另卽智), 무력지(另力智) 등으로 나온다. 법흥(法興)이라는 이름은 불교를 공인한 후에야 등장한다. 그러니 모즉지는 법흥왕이 틀림없다. 특이한 것은 매금왕이라는 표현이다. 매금(寐錦)은 광개토왕비와 충주고구려비에도 나오는데, 마립간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매금왕은 말하자면 ‘마립간왕’이라는 다소 어색한 표현이다. 법흥왕을 포함한 14명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한 처벌을 결정했는데, 봉평비는 그 처벌의 기록을 담고 있다. 장 100대, 장 60대… 처벌의 내용이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

봉평비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오래된 비석이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발견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율령 반포와 그 내용에 관한 것이다. 봉평비에는 노인법(奴人法)이라는 법을 따르

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보다 앞선 법흥왕 7년(520), 아직 매금왕이라고 불리던 그는 율령을 반포하고 신하들의 위계인 관등을 정비했다. 이보다 앞선 지증왕 4년(503)에 포항 지역의 재산 문제를 해결했던 기록이 담겨 있는 냉수리비의 결정은 이 전 두 왕의 교시(敎)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봉평비가 세워질 시점에는 법을 따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봉평비의 발견으로 520년 율령을 반포하던 시점에 신라의 17관등이 정비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 전까지는 『삼국사기』의 율령 반포 기록과 함께 나오는 공복제(公服制) 정비와 연결하여, 단순히 의관제 정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고, 17관등도 훨씬 뒤 시기의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봉평비의 발견으로 모두 뒤집어진 것이다.

이 판결을 내릴 때 법흥왕이 당시 ‘거벌모라’라고 불리던 올진까지 왔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다만 이 판결은 당시에 꽤 중요한 판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왕을 비롯한 14명이나 되는 신라의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이 사안을 논의한 것도 그렇지만, 이후 얼룩소(斑牛)를 잡아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도 그렇다. 이 지역의 통치가 중요했다는 것

봉평비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오래된 비석이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발견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울진봉평리신라비

을 보여준다.

처벌을 받은 이들, 이곳에 파견된 중앙의 관리들을 보면 당시 신라 지방 지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이 실직군(봉평비에는 실지군으로 등장)의 관할이었으며, 거벌모라에는 도사(道使)라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 파견되어 있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 지배층은 중앙에서 준 외위(外位)를 갖고 있었음도 확인된다. 율령의 내용, 지방통치체제의 모습, 비석의 해석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이견(異見)이 분분하지만, 그것마저도 봉평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다. 1988년 4월에 발견된 봉평비는 그해 11월에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국보 지정이 진행

된 것은 봉평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정도면 필자가 ‘먼 길’을 시간을 들여 찾아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설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3.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은 하나의 비를 위한 전시관으로는 굉장한 규모였다. 물론 전시관의 중심은 봉평비였지만, 금석문 전반을 아우르는 박물관으로 180억을 들여 기획·조성되어 2011년에 문을 열었다. 도착하면 넓고 쾌적한 주차장이 반긴다. 주차도 전시도 모두 무료다. 관람시간은 계절에 따라 9:00~18:00/10:00~17:00로 유동적이고, 박물관답게 월요일과 설, 추석, 1월 1일 등은 휴무이다.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 곳이 제1전시실이다. 이곳은 봉평비를 위한 전시공간이다. 이곳에는 봉평비 실물은 물론, 발견 경위, 탁본, 해석과 내용, 역사적 의의까지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다. 제1전시실 중앙에서 홀로 조명을 받고 있는 봉평비를 보고 있노라면, 바로 1년 뒤에 발견된 냉수리비가 아직도 신광면행정복지센터 앞 비각에서 간신히 비를 피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제2전시실은 삼국시대의 비라는 주제로 꾸며져 있다. 충주고구려비, 진흥왕순수비들, 남산신성비, 사택지적비 모형까지 신라는 물론 고구려와 백제의 석비(石碑)를 아울러 전시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돌에 새겨진 역사를 보여주고 금석문의 중요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실 금석문이야말로 당대의 기록으로,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과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 체험! 역사현장



비각 속에 있는 냉수리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읽어낸 내용조차 그렇게 재미있는 것만은 아니어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제2전시실은 그러한 금석문의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다.

제3전시실은 기록의 인간, 시대별 비의 특징, 한자에서 한글로, 세계 속의 한글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언젠가부터 흔적을 남겼다. 쇼베(Chauvet), 라스코(Lascaux), 알타미라(Altamira)의 동굴벽화는 3만여 년 전 인류의 기록이다. 그 후 인류는 끊임없이 기록을 남겼다. 기록이야말로 지식의 보존과 전달의 매개였으며, 지금의 인류를 가능하게 했다. 제3전시관은 이런 기록의 역사를 한반도의 기록문화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에 대해서도 전시한다. 한글이야말로 현재 우리 기록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가장 특징적이기도 한 야외전시실이다. 이곳에는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국보, 보물급의 32개 석비가 실물 모양으로 제작되어 전시되어 있다. 물론 모두 2011년 무렵 새로 제작한 것이라 오



야외전시실

래된 느낌도 없고, 당연히 원래의 비석과도 세부적인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 많은 비들을 한곳에서 비교하며 보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원래의 유물을 보는 것만은 못하지만 일일이 이 비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수고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 4.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을 떠나며

역사학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고 나열하는 학문이 아니다.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당시의 사회와 인물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한 인문학이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과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긴 흔적을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

## 체험! 역사현장

1,500년 전  
사람들과의 만남은  
특별한 경험이다.  
울진봉평신라비  
전시관에서  
그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되어야 한다. 역사학에서 강조하는 사료가 바로 그들이 남긴 흔적이고, 봉평비는 그 사료 가운데 하나이다. 심지어 봉평비는 1,500년 전 사람들과 지금을 바로 이어준다.

1,500년 전 사람들과의 만남은 특별한 경험이다. 당장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에 간다고 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곳을 찾아가 비석을 보고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보다 보면 그것을 돌에 새긴 사람, 그 비석에 있는 처벌의 내용을 결정하고 비석을 새기라고 명령한 사람, 그 명령에 의해 처벌 받은 사람, 명령을 수행한 사람, 그리고 새겨진 비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혹시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그 먼 길을 가는 수고는 아쉬울 것이 없어진다. 그 특별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수진(朴洙震, Park, Soo-jin)**

성북문화원 부장

성균관대학교에서 신라사를 전공했다. 현재는 신라 신분제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동시에 성북문화원에서 문화기획, 문화콘텐츠 및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학으로서의 역사학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 중이다.

## 2022년 몽골 울란바타르의 풍경과 세계화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Ulaanbaatar) 중심부에 있는 수흐바타르광장에는 그 중심에 말을 타고 있는 몽골의 독립영웅 수흐바타르(D. Sükhbaatar, 1893~1923) 동상(1946년 건립)이 있고 광장 북쪽의 몽골 의사당 및 정부청사 건물(2006년 건립)에는 칭기즈칸(Chinggis Khaan, 1162~1227)과 우구데이칸(Ugedei Khaan)과 쿠빌라이칸(Khubilai Khaan)의 동상이 있고 칭기즈칸의 앞에는 말을 탄 영웅 모홀라이(Muhulay)와 버르치(Boorchi)의 동상이 있다. 몽골의 영광과 독립을 상징하는 말과 칭기즈칸과 수흐바타르가 갖는 의미가 크다.

2022년 울란바타르 시내에서 자연스럽게 본 동상과 문화행사들은 몽골의 국가정체성 변동과 사회 운영 원리 변화와 세계화 현황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필자는 울란바타르의 공공장소에 보이는 동상들과 거기서 열린 몇몇 문화행사를 통해 몽골 현지 분위기와 세계화 형태에 대한 스케치를 해보



수흐바타르광장의 수흐바타르 기마상과 국회의사당·정부청사 건물中间的 칭기즈칸 좌상 (2022.10.2)

고자 한다. 여기에는 정영동의 『조각·예술로 본 몽골인의 정신과 문화: 몽골·몽골문화』(서울: 일진사, 2004), 아. 체렝출롱의 『울란바타르 시내 관광』(Ub: ADMON 출판사, 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 1. 몽골인 인물상과 국민 통합

수흐바타르 동상과 칭기즈칸 좌상 등은 몽골의 정치적, 사회적 통합과 주권을 표상하는 상징물이다.

담딘 수흐바타르의 동상은 광장의 중간에 말을 탄 모습으로 서 있고, 칭기즈칸의 좌상은 몽골 정부청사의 앞면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1993년 도입된 현행 몽골 지폐의 양대 모델로도 활약하

고 있다. 이것들은 몽골의 정치적, 사회적 통합과 주권을 표상하는 상징물이다. 수흐바타르 장군은 몽골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도 국가의 대표 인물로 추앙을 받았지만, 몽골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칭기즈칸은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던 몽골에서는 사실상 기피인물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칭기즈칸은 1990년 무렵 몽골의 체제 전환 이후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울란바타르 시내에는 주로 몽골현대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보인다. 먼저 수흐바타르광장 남쪽의 평화대로 건너편에는 1999년 건립된 조릭(S. Zorig)의 동상이 있다. 조릭은 1990년 민주화 혁명의 지도자로 활약했으며, 국가 기반 시설 장관을 하던 1998년 10월 2일에 괴한들에게 살해되었다. 이는 몽골에서 국민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몽골 국립박물관 앞에는 1921~1950년까지 발생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정치 탄압 희생자 추모비가 있다.

그리고 울란바타르 시내에는 곳곳에 각 분야에서 현대 몽골을 만든 공로자들의 또 다른 동상들이 있다. 몽골 국립대학교(1942년 설립) 앞에 1946년 처이발상(Kh. Choibalsan)의 동상이, 국립백화점 건너편에는 1999년 체렌도르지(B. Tserendorj)의 동상이, 울란바타르호텔 앞의 원림에는 나찰도르지(D. Natsagdorj)의 동상이 있다. 우르고 시네마 근처에는 초대 국립대학교 총장(1942)이자 몽골과학아카데미(1962) 원장이었던 시렝테우(Bazaryn Shirendev)의 동상이 있다. 또한 울란바타르 시내에는 ‘툼바쉬’(화목한 네 동물) 동상과 조형물이 종종 보인다. 이 동상은 몽골사회에서 국민적 설화에 바탕을 둔 사회통합의 화두를 던지는 상징물이다.

몽골의 국가발전에는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한데, 몽골의 국가 싱크탱크는 1921년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 기관은 1961년에 ‘몽골과학아카



‘툼바쉬’(화목한 네 동물) 동상(2022.10.2)

데미’로 재조직되었다. 현재 몽골은 세계 몽골학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연구에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된다. 몽골은 국가 발전과 몽골학의 발전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외국인 인물상으로는 몽골 외교부 건너편에 있는 마르코 폴로(Marco Polo) 동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22년 8월 6~8일까지 울란바타르에서는 ‘칭기즈칸의 세계와 몽골학’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자국의 국제적 발언권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과학아카데미 회의실 벽에는 고밀료프(Lev Nikolaevich Gumilyov, 1912~1992)의 흉상이 있는데, 그의 첫 번째 책은 『홍



‘칭기즈칸의 세계와 몽골학’ 국제학술대회 장면(2022.8.8)

2022년 8월  
6~8일까지  
울란바타르에서는  
‘칭기즈칸의  
세계와 몽골학’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자국의 국제적  
발언권을 높히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노: 『고대의 중앙아시아』(1960)였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역사 문제 관련 협력 기반을 다지는 작업의 일환으로 몽골역사사회와 교사 한국사 워크숍(5.27)을 열었고, 한몽 공동학술회의(7.6)도 열었다.

## 2. 외국인 인물상과 국제 교류

울란바타르의 외국인 인물상은 몽골 사회주의 시절 70년 동안 주로 소련쪽 인물이었다. 여러 개 세워진 레닌의 동상이 대표적이고 스탈린의 동상

도 있었다. 예외가 있다면 몽골 과학아카데미 건물 앞에 세워진 코페르니쿠스(Nicolas Copernicus) 흉상과 같은 것이다. 이 흉상은 코페르니쿠스 탄생 500주년을 맞아 1973년 폴란드 정부가 선사한 것이다. 몽골과학아카데미 근처에 있는 14번 학교 운동장에는 호치민(Ho Chi Minh) 동상이 있다.

울란바타르 일원에서 볼 수 있는 구소련 관련 기념물과 동상에는 자이승전승기념탑(1954 건립), 혁명몽골 탱크(1968), 소련의 영웅들(1971) 등 자이승전승기념탑 일대의 기념물이 대표적이다. 1984년 바양주르흐구의 주코프박물관 옆에 세워진 주코프(G.K. Jukov) 동상도 있다. 그는 구소련의 4성장군이며 몽골의 장군으로서 할힌골전투(노몬한전투)에서 전쟁을 지휘하였다.

또한 블루스카이호텔 근처에는 1984년에 세워진 셰틴킨(Pyotr Efimovich Shetinkin)의 흉상이 있다. 그는 1921년에는 적위 원정군을 조직하여 담딘수흐바타르 휘하의 몽골 파르티잔과 함께 운게른-슈테른베르크(Roman von Ungern-Sternberg) 남작의 군대를 물리쳤다. 셰틴킨이 물리친 운게른-슈테른베르크의 단짝 세묘노프(Grigory Mikhaylovich Semyonov)는 칭기즈칸의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꿈을 가진 특이한 인물이었다.

이들 기념물과 동상은 몽골에서 구소련군의 주둔이 장기적으로 이어진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구소련군은 최고 10만 명까지 몽골에 주둔했는데, 1992년 후반까지 완전히 철수했다. 이는 제6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ech Gorbachev)의 주도로 구소련에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고 냉전체제가 허물어진 결과였다.

그런데 2014년 울란바타르 도쿄 거리의 러시아과학문화센터 건물 앞에는 러시아의 외교관이자 동양학자인 코로스토베츠(Ivan Yakovlevich Korostovets)의 동상이 세워졌다. 이 동상은 2014년 9월 3일 러시아 푸틴



2014년에 세워진 러시아 외교관 코로스토베츠의 동상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세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2010년대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수화하였다.

(Vladimir Putin)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제막식이 열렸다. 코로스토베츠는 1911년과 1912년 신해혁명 당시에 몽골인들이 제8대 젍쑤담바(Jebtsundamba)를 중심으로 몽골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 러시아의 외교관으로 러시아의 이익에 따라 몽골의 외교를 조율했던 인물이다.

2014년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자원 관련 협정이 맺어지는 시점이었다.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세계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러시아는 2010년대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

수화하였다. 러시아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명적 국경[‘루스키 미르(Russkiy mir)’라고 하는 ‘러시아의 세계(Russian world)’]과 물리적 국경이 다르다는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울란바타르에 중국 관련 동상이나 기념물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몽골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몽골은 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와 중국 이외의 국가와도 관계를 돈독히 하려는 ‘제3의 이웃’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 상대로는 미국을 제외하면, 인도(1955 수교), 튀르키예(1969), 일본(1972), 독일(1974), 캐나다(1973), 호주(1972), 한국(1990) 등이 거론된다. 또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울란바타르에는 ‘제3의 이웃’ 정책의 흔적이 보인다. 간디(Mahatma Gandhi) 거리에는 2006년 인도와 몽골 수교 50주년을 기념하여 간디 동상을 세웠다. 동상에는 간디가 20대부터 수첩에 써넣고 다닌 ‘원칙이 없는 정치’ 등 “일곱 가지 큰 죄(Seven Deadly Sins)”라는 항목이 있다. 1996년에 울란바타르에 설치된 튀르키예대사관에도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동상과 “가정에 평화, 세계에 평화(Yurtta sulh, cihanda sulh)”라는 표어가 있다. 이런 정의와 평화는 몽골이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 3. 한국문화와 몽골의 세계화

1982년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연결했다. 1980년대 이래 한국인들은 산업화에 이어 미국 진출, 북방정책 등 여러 방식으로 세계화와 정보화에 매진했다. 세계화의 성공은 한국을 여러 분야의 선도 국가로

밀어 올렸고, 한류 문화상품의 공급자라는 지위를 구축하였다.

몽골도 문화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치열한 세계화의 현장이다. 울란바타르의 거리에서 한국인 동상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홍익인간 석상(1996 건립), 서울의 거리(1996)와 서울 팔각정(2002), 국립공원 안의 서울숲(2013)이 있다. 서울숲 앞에는 해치 석상 두 기가 있다. ‘남양주 거리’에는 남양주 문화관 앞의 장승 4기(2001)가 세워져 있다. 무엇보다 한국 관련 기념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이승전승기념탑 인근의 이태준(李泰俊)선생기념공원(2000)이다.

이태준 선생은 의사로서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었다. 그가 처음 몽골에 발을 디딘 것은 1914년이었는데, 신해혁명에 감명 받아 중국 난징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그에게 김규식이 몽골에 비밀군관학교를 건설하자고 권고한 것이 계기였다. 울란바타르에 도착한 이태준은 동의의국(同義醫局)이라는 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에서 이태준은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을 오가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다.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돈을 독립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료환경이 변변치 않았던 현지인들을 치료하는 데도 힘을

무엇보다  
한국 관련 기념물  
중에 대표적인 것은  
자이승전승기념탑  
인근의  
이태준(李泰俊)  
선생기념공원이다.



이태준 선생의 묘

쏟아 많은 몽골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망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울란바타르를 중심으로 활약하던 이태준은 1921년 2월, 소비에트 정부의 지원금을 상해 임시정부로 이송하던 중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백위파 지휘관 운게른(Roman von Ungern-Sternberg) 일파에게 붙잡혀 살해되고 말았다. 향년 38세, 황량한 타국에서 맞은 황망한 최후였다. 훗날 우리 정부는 이태준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지금 울란바타르에는 이태준 선생의 기념공원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올해 수흐바타르광장에서 ‘한국 주간’ 행사(Korea Week, 9월 첫째 주말), 울란바타르호텔에서 개천절을 기념하는 ‘한국의 날’ 행사(9.30)가 열렸다. 이들 행사에서 한국 측은 모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

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의 날’ 행사에서 한몽친선협회 몽골 측 회장은 몽골정부의 비전 2050 중장기개발계획과 신부흥정책을 언급하면서 한국 측이 지역안보 및 평화를 위한 ‘울란바타르 대화’를 지지해주어 감사하다고 했다. 이런 행사에서 한류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한국 관련 행사에는 에일리의 <보여줄게>(2012.10.16 발매)가 흘러나왔다. 학술 차원에서 몽골에는 여름이면 10여 개의 흉노유적 고고발굴팀이 들어와 고고학발굴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발굴은 또 흉노제국에 대한 해석 경쟁이기도 하다. 흉노사를 포함한 북방사에 대한 정리와 해석 성과를 내는 것도 한국이 세계화 흐름 속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 중요할 것이다.



**박장배(朴章培, Park, Jangbae)**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동양사(동유라시아 근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임연구원,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인천대학교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20세기 전반기 티베트의 대외관계, 중국의 민족 개념, 민족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변경지역 연구와 역사인식 문제, 동유라시아 각 역사공동체의 문화통합 사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Message from the Editor-in-Chief** Kim, Hyun-chul

Guest Essay

**On the Stele of King Gwanggaeto**

Noh, Tae-Don

Focus

Koguryo History  
Embedded in Stela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Rubbing of the  
“Gwanggaeto Taewang” Tombstone Stele, known as the Hyejeong  
Version**

Beack, Seoung-ok

**The Discovery and Issues of the Gwanggaeto Stele: Focusing on the  
Record of the Year of Shinmyo**

Kang, Jin-won

**The Discovery and Issues of the Jip-an Koguryo Stele**

Wee, Ka-ya

**The Discovery and Issues of the Chungju Koguryo Stele**

Lee, Gyu-Ho

**Research of the Chungju Koguryo Stele through the Latest Scientific  
Methods**

Ko, Kwang-eui

**The “Uncharactered Stele” at the Qianling Mausoleum in Xi’an, China**

Hong, Sungmin

Experience Historical Sites

**Introduction to the Uljin Bongpyongri Sillabi Museum**

Park, Soo-jin

Field Report

**The Landscape and Globalization of Mongolia’s Capital Ulaanbaatar  
in 2022**

Park, Jangbae